

# 王士雄의 臨床醫學에 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王昭迎·金容辰

## I. 緒論

王士雄의 字는 孟英, 兒名은 錢龍, 晚號는 夢隱 또는 潛齋라고도 한다. 浙江 海寧人으로 咸農中(1851~1861年)에 上海로 移徙하였다고 한다.

그에 대한 醫史學 書籍의 기재를 보면, “열네살에 아버지를 잃고 醫學을 배우려고 외삼촌 俞世貴 桂庭에게 갔는데, 桂庭 또한 醫에 밝았다. 외삼촌이 집안을 도와주고 또한 집을 주어 潛이라 이름지어 주었으니 潛心하여 學問을 하고 집안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부탁이었다. 그리하여 十年동안 戶庭出入을 閉하고 一切의 外事를 물리치고 手不釋卷하였다. 그 結果 學問과 생각에 있어 남이 미칠 수 없게 되었으나, 남들이 바보라고 일컫자 因하여 自號를 半癡山人이라 하였다. 臨證할 때는 깊이 생각을 하였고, 處方은 지극히 平淡했으나 病을 잘 治療하자 名聲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葉天士를 私淑했고 葉氏의 學者中에서는 孟英이 巨擘이 된다. 王氏는 특히 霍亂을 잘 治療하였는데 그의 醫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sup>1)</sup>고 하였다.

그의 主要 著書는 《霍亂論》二卷, 《溫熱經緯》五卷, 《潛齋醫話》, 《簡效方》一卷, 《四科簡效方》, 《歸硯錄》, 《王氏醫案》, 《鷄鳴錄》二卷, 《柳洲醫話》一卷 등이 있으며 그의 서적을 모아서, 《潛齋醫學叢書》라 이름 했는데, 八種(咸豐四年), 十四種(民國六年), 或五種, 十種이 行世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臨床醫學에 대한 考察은 基本的으로 上記한 그의 書籍들에 대한 檢討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 그의 醫論, 醫案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는 溫病學派의 代表的인 醫家로서 現代 各家學說 研究者들에 의해서도 많은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러한 現代 中國學者들의 先行研究를 통해서도 王氏의 臨床醫學의 全貌를 파악할 수 있다.

筆者는 이상에서 제시한 方法에 의해서 王氏의 臨床醫學을 考察해 본 結果 그의 臨床醫學은 溫病에 대한 診斷治療, 痰證의 診斷과 治療, 霍亂의 診斷과 治療, 血症의 診斷과 治療, 中風의 診斷과 治療, 痢疾의 診斷과 治療, 急證의 診斷과 治療, 食療의 應用 등 다양한 분야에 長點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臨床診治 學說 中에는 지금 應用하여도 전

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337.

히 손색이 없는 部分들을 發見할 수 있었다. 이에 調査된 內容들과 그에 대한 考察을 斯界에 이를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王士雄 臨床醫學의 概況

王士雄의 臨床醫學은 溫病에 대한 診斷治療, 痰證의 診斷과 治療, 霍亂의 診斷과 治療, 血症의 診斷과 治療, 中風의 診斷과 治療, 痢疾의 診斷과 治療, 急證의 診斷과 治療, 食療의 應用 등이 代表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대해서 整理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溫病의 診斷과 治療

王士雄의 가장 代表的인 臨床학설은 溫病에 대한 證治라고 할 수 있다. 王士雄의 溫病學說의 特徵에 대해서 《中醫歷代各家學說》에서는 “六氣의 속성을 자세히 분석하여 霍亂의 論治를 주제로 研究하였다.”<sup>2)</sup>고 하였다. 그의 溫病에 대한 學說은 아래에 제시하는 몇가지 方面에서 特徵을 찾을 수 있다.

#### 1) 《溫熱經緯》의 特徵

王士雄의 溫病에 대한 學說은 《溫熱經緯》에서 그 代表的인 內容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特徵은 한마디로 諸家의 學說을 모아서 溫病의 原流를 論述하였다는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 《中醫各家學說》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王氏는 歷代醫家들이 外感病을 論述하는 과정 중에서 前인들이 “或以傷寒爲溫熱 或以溫熱爲傷寒 或并疫于風溫 或并風溫于疫 或不知有伏氣爲病 或不知有外感之溫 甚至并暑暘二字而不識”<sup>3)</sup>이라고 한 것에 有感을 가지고 先賢들이 溫病을 論述한 것 중에서 가장 代表的인 部分을 정리하고 모아서 《溫熱經緯》라는 책을 著述하였다. 그는 이 책 안에 《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溫熱論治, 幼科要略, 溫熱條辨 溫熱病指南集, 《疫疹一得》 등의 著作 중에서 有關한 內容을 모았고 또, 溫病에 伏氣, 新感, 溫熱, 濕熱, 風溫, 疫病이 서로 다른 것에 根據하여 十二篇으로 編輯하였다. 그 條目을 보면 ‘內經伏氣溫熱篇’, ‘仲景伏氣溫病篇’, ‘仲景伏氣熱

2) 裘沛然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233.

3) 王士雄, 溫熱經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

病篇’, ‘仲景外感熱病篇’, ‘仲景濕溫篇’, ‘仲景疫病篇’, ‘葉香岩外感溫熱篇’, ‘葉香岩三時伏氣外感篇’, ‘陳平伯外感溫病篇’, ‘薛生白濕熱病篇’, ‘余師愚疫病論’, ‘疫症條辨’으로 나누어져 있다. 매 일 부분 중에 또 많은 歷代 名醫의 論述들을 收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章虛谷, 周揚俊, 張璐, 沈堯封, 王安道, 吳鞠通, 尤在涇, 喻嘉言, 徐大椿, 張隱庵, 馬元儀, 趙以德, 方中行, 成無己, 郭白云, 王冰, 楊上善, 皇甫謐 등의 見解에 註釋을 하였다. 그리하여, “俾讀者 先將溫暑濕熱諸病名了然于胸中 然後博覽群書 庶不爲其所眩惑 而知所取舍矣”라고 하였다. 全書를 考證해 보면 이는 眞實로 溫病學說의 大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溫病學說의 發展原流를 反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楊照藜는 이 冊의 序言 중에서 “其言則前人之言也 而其意則非前人所及也”라고 하였다. 이 冊은 後學이 溫病學說의 病源을 理解하고 病變, 主要內容을 把握하는데에 重要な 作用을 하고 있다.<sup>4)</sup>

이상의 內容을 통해 王氏의 《溫熱經緯》는 溫熱學說을 總結하고 發展시켰으며 各家의 長點들을 綜合하고 자신의 意見을 적절히 參考한 書籍이란 것을 알 수 있다. 《中國醫學史》에서는 “《溫熱經緯》는 《內經》과 《傷寒論》 중에 溫病과 有關한 條文을 經으로 삼고 葉天士, 薛生白, 陳平伯 등 諸家의 學說을 위로 삼았으며 거기에 本人의 按語를 添加하고 있다.”<sup>5)</sup>고 하였다. 《中國醫學簡史》에서는 이 책을 “葉天士와 吳鞠通의 學說을 계승하는 溫病學說의 系譜를 있는 중요한 書籍이다.”<sup>6)</sup>라고까지 극찬하고 있다.

## 2) 伏氣溫病에 대해서 論함.

王氏는 伏氣溫病과 新感溫病의 鑑別診斷에 능하였으며 葉天士 이후로 新感溫病에만 치중하여 伏氣 溫病을 소홀히하는 風潮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提示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中醫各家學說》에서는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溫病은 新感溫病과 伏氣溫病의 두 種類가 있는데 伏氣溫病은 비록 《內經》에서 처음으로 提示하고 있기는 하지만 歷代醫家들은 또한 다른 角度에서 研究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葉桂의 《溫熱論治》가 세상에 나온 후에 적지 않은 醫家가 臨床에서 溫病을 辨治할 때에 종종 葉氏의 新感說을 따르고 伏氣의 學說은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 柳寶治는 《溫熱逢源》에서 “近人專宗葉氏 將伏氣發溫之病 置而不講 每遇溫邪 無論暴感伏氣 概用葉氏辛涼輕淺之法 金銀花 連翹 桑白皮 菊花 隨手立方 醫家病家 取其簡便 無不樂從 設有以伏氣之說進者 彼且視爲異說 茫然不知伏氣爲何病”<sup>7)</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後學들로 하여금 新感과 伏氣를 區分하게 하기 위해서 王士雄은 伏氣溫病에 대해서 특별히 重點을 두어 論述하고 있다.

4) 裘沛然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479 - 482.

5) 楊醫並主編, 中國醫學史, 河北省,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p.148..

6) 俞慎初, 中國醫學簡史, 福建省,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3. pp.380 - 381.

7) 裘沛然, 上揭書. p.480.의 內容을 再引用함.

王氏는 伏氣溫病을 論하는데 그 傳變方式과 特徵, 初起證象, 治法에 主眼點을 두고 있는데 그는 “伏氣溫病 自裏出表 乃先從血分而後達于氣分 故起病之初 往往舌潤而無苔垢 但察其脈奕而或弦或微數 口未渴而心煩惡熱 卽宜投以清解營陰之藥 迨邪從氣分而化 苔始漸布 然後再清其氣分可也 伏邪重者 初起卽舌絳咽乾 甚有肢冷脈伏之假象 亟宜大清陰分伏邪 繼必厚膩黃濁之苔漸生 此伏邪與新邪先後不同處 更有邪伏深沈 不能一齊外出者 雖治之得法 而苔退舌淡之後 踰一二日舌復乾絳 苔復黃燥 正如抽蕉剝藕 層出不窮 不比外感溫邪 由衛及氣 自營而血也”<sup>8)</sup>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伏氣溫病의 病機는 血分으로부터 氣分에 到達하는 것이므로 初期證象이 說이 潤澤하면서 舌苔가 없으며 脈은 奕하면서 或弦하고 或微數한 것을 兼하며 渴症이 없고 心煩, 惡熱하다고 한 것이다.

그 治療는 清解營陰시켜서 邪氣가 氣分을 따라서 化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伏邪가 重한 경우는 舌絳, 咽乾하며 심한 경우는 肢冷, 脈伏한 假象까지 생긴다고 하였다. 그 治療는 陰分の 伏邪를 大清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新感溫病과 가장 큰 차이는 舌苔의 變化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9)</sup>

### 3) 順逆傳을 論함.

順逆傳의 學說은 葉天士에게서 처음으로 始作하였는데 王士雄은 이에 대해서 깊은 研究를 施行하였다. 그는 “溫邪始從上受 病在衛分 得從外解 則不傳矣 不從外解 必致裏結 是由上焦氣分以及中下二焦者爲順傳 惟包絡上居膻中 邪不外解 又不下行 易于襲人 是以內陷營分者爲逆傳也 然則溫病之順轉 天士雖未點出 而細繹其議論 則以邪從氣分下行爲順 邪入營分內陷爲逆也 苟無其順 何以爲逆”<sup>10)</sup>이라고 하였다. 《中醫各家學說》에서는 이에 대해서 세가지 觀點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逆傳은 邪氣가 衛分으로부터 안으로 榮分에 陷入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逆傳의 機轉은 心肺는 膈上에 함께 居하는데 溫邪가 外部로 解散되지 못하고 또 下行하지도 못하면 逆傳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溫病에 이미 逆傳이 있다면 반드시 順傳도 있는데 順傳이란 邪氣가 上焦의 氣分으로부터 下行하여 中焦와 下焦에 이르게 되면 裏結證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1)</sup>

順逆傳에 의하여 邪氣가 內陷하는 것에 대해서 王氏는사기가 폐에서 心包로 나아가는 것은 病邪가 上部로 漸進하면서 內陷되는 것이므로 逆이라고 보았고 肺에서 胃腑로 전하는 것은 病이 아래로 出하고자 하면서 內陷되는 것으로 順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 그는 “肺胃大腸 一

8) 王士雄, 上揭書. p.79.

9) 裘沛然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479 - 482.

10) 王士雄, 上揭書. p.68.

11) 裘沛然主編, 上揭書. p.481.

氣相通 溫熱究三焦 以此一臟二腑爲最要 肺開竅于鼻 吸入之邪 先犯于肺 肺經不解 則傳于胃 謂之順傳 不但臟病傳腑爲順 而自上及中 順流而下 其順也 有不待言者 故溫熱以大便不閉者易治 爲邪有出路也 若不傳于胃 而內陷于心包絡 不但以臟傳臟 其邪由氣分入營 更進一層矣 故曰逆傳也<sup>12)</sup>”라고 하였다. 이는王氏가 順傳을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肺로부터 胃로 들어가는 것과 胃로부터 腸에 이르는 傳變過程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아래로만 順流하여 내려가는 것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說明하는 것이다. 그리고, 逆傳에 대한 이해는 氣分으로부터 榮分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衛로부터 營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도 氣로부터 營으로 들어가는 것도 意味하는 것으로 臟으로부터 臟으로 들어가는 것과 邪氣가 深入하며 病情이 惡化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說明하는 것이다.

#### 4) 善用한 藥物과 治法

王氏는 溫熱病을 治療하는데 清熱甘潤之劑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中醫各家學說》에서는 “그는 溫熱病에 清熱甘潤之劑를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白虎湯을 善用하였으며 痰을 治療하는 藥들을 善用하였다.(예를 들면 雪羹湯). 어떠한 溫熱病을 治療하는데 있어서는 攝生, 豫防, 食療 등의 方面에 다양한 治療經驗들을 가지고 있다.”<sup>13)</sup>고 하였다.

#### (2) 痰證의 診斷과 治療

痰證의 診斷과 治療에 대해서王氏는 매우 많은 臨床經驗과 學說을 가지고 있었는데 《蒼萃溫病學說的王士雄》이란 現代 中國醫書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敘述하고 있다.

《王氏醫案釋注》에 수록된 450餘 醫案으로부터 살펴보면 痰藥을 배합하여 論治한 경우가 300餘 醫案 以上이 되었다. 또 滌痰法을 가지고 溫病을 治療한 경우는 溫病을 治療하는 새로운 方法을 提示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4)</sup>

#### 1) 痰證의 病因과 病機

王氏는 “痰”이 津液이 燒灼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 原因에 대해서 《蒼萃溫病學說的王士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體內에 본래부터 있던 것으로 “素有痰飲 盤踞胸中”<sup>15)</sup>하거나 “平日體豐多濕 厚味釀痰”<sup>16)</sup>하거나 혹은 “沈湎于酒 皆爲釀痰之媒”<sup>17)</sup>거나 혹은 “心多思慮 五火內熾 灼液成痰”<sup>18)</sup>

12) 王士雄, 上揭書. pp.144 - 145.

13) 陳大舜主編, 《中醫各家學說》, 湖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5. p.177.

14) 吳家清編著, 蒼萃溫病學說的王士雄, 中國歷代名醫學術經驗蒼萃叢書, 1985. p.30.

15) 吳家清編著, 上揭書. p.30. 의 內容을 再引用함.

등의 因素로 인하여 體內에 停痰과 伏飲이 생기게 된 것을 가리킨다.

두 번째로는 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病理的인 產物로 예를 들면 “七情內動 卽是 火邪 六氣外侵 皆以熱化 氣化燔灼 卽煎熬其固有之津液以成痰”<sup>19)</sup>이라고 하였고 “濕蒸爲熱 灼 液成痰”<sup>20)</sup>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伏邪가 오랫동안 쌓여서 깊숙히 營血에까지 들어가면 그 形勢가 만드시 津液을 煩灼시키고 痰濁을 發生시킨다는 것이 주된 內容이다.<sup>21)</sup>

以上에서 살펴본 內容과 王氏의 諸般 書籍을 考察해 보면 王氏는 痰의 가장 큰 原因을 “火”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按痰古作淡 顯系二火搏水以成痰也”<sup>22)</sup>라고 하였고, 七情鬱火와 外感化火는 모두 津液을 끓여서 痰이 되게 한다고 하였으며, 혹 五志가 鬱極하면 火로 化하게 되는데 이는 痰을 發生시키는 原因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에 대한 예를 들면 “胃火盛則飲食生痰 痰愈甚則肥濃愈嗜 肝火熾則津液凝痰 痰愈盛則經絡愈燥者 是也”<sup>23)</sup>라고 하였다.

그는 또 氣機의 失調와 密接하게 聯關되어 있다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王氏醫案》에서 한 사람을 治療하는데 그 原因을 “緣肝升太過 胃降無權 別辟窠囊 據爲山險 初則 氣滯以停飲 繼則飲蟠而氣阻”<sup>24)</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氣運이 滯하면 痰이 生한다는 것을 提示한 한 가지 예이다. 이 內容 말고도 그의 醫案에서는 痰이 發生시키는 疾患이 氣機의 失調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重點을 두고 說明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王氏는 疾病이 進行하는 과정 중에 痰, 火, 氣, 食 등의 여러 가지 因子가 서로 結合하고 서로의 因果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卒仆于地 急延孟英脈之 弦滑而大 曰 痰氣 食 相并而逆于上也”<sup>25)</sup>라고 한 內容 등을 들 수 있다. 이로부터 “痰”은 病理的인 產物이면서 病이 들게 하는 因素의 役割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內容을 考察해 보면 王氏는 痰의 病因을 火가 그 代表的인 것이라고 보았고 그것이 疾病으로 化하는 과정에서 痰, 火, 氣의 세가지 因子가 서로 결합하여 복잡한 病症들을 나타낸다고 본 것을 알 수 있다.

## (2) 常見하는 痰病의 證治

王氏가 治療한 주로 보이는 痰病에 대해서 《蒼萃溫病學說的王士雄》에서는 痰熱兼表證, 氣

16) 吳家清編著, 上揭書. p.30. 의 內容을 再引用함.

17) 吳家清編著, 上揭書. p.30. 의 內容을 再引用함.

18) 吳家清編著, 上揭書. p.30. 의 內容을 再引用함.

19) 吳家清編著, 上揭書. p.30. 의 內容을 再引用함.

20) 吳家清編著, 上揭書. p.30. 의 內容을 再引用함.

21) 吳家清編著, 上揭書. p.30.

22) 吳家清編著, 上揭書. p.30. 의 內容을 再引用함.

23) 吳家清編著, 上揭書. p.30. 의 內容을 再引用함.

24) 達美君校註, 王孟英醫案, 明清中醫臨證小叢書, 1994.. p.167.

25) 達美君校註, 上揭書. p.162.

熱兼痰證, 營熱夾痰證, 血熱夾痰證, 痰迷心竅證, 肝熱夾痰證, 脾虛夾痰證, 肺熱夾痰證, 腎虛夾痰證, 痰阻胸膈證, 氣滯痰阻證, 氣虛夾痰證, 痰瘀交阻證, 肝風夾痰證, 痰熱互結證, 痰濕阻痺證, 陰虛夾痰證, 陽明痰結證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는데 이중에 痰熱兼表證, 氣熱兼痰證, 營熱夾痰證, 血熱夾痰證, 痰迷心竅證 등은 溫病에 痰이 兼한 證象들로 점차적으로 重한 상태의 疾病을 發生시킬 때의 診斷과 治法이 一目瞭然하게 정리된 것이고 肝熱夾痰證, 脾虛夾痰證, 肺熱夾痰證, 腎虛夾痰證 등은 五藏의 火에 의하여 津液이 痰으로 化하였을 경우에 發生하는 痰證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며 痰阻胸膈證, 氣滯痰阻證, 氣虛夾痰證, 痰瘀交阻證, 肝風夾痰證, 痰熱互結證, 痰濕阻痺證, 陰虛夾痰證, 陽明痰結證 등은 各種 雜病에 보이는 夾痰證을 설명한 것이다. 그 內容을 考察해 보면 역시 王氏는 痰病의 가장 큰 原因이 溫病, 五藏의 實火 및 虛火, 濕熱, 風熱, 陰虛熱, 陽明熱 등 各種 雜病의 熱邪라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 1) 痰熱兼表證

“痰熱內阻 風溫外侵”, “外感風溫煽動素鬱之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風溫과 痰濁이 서로 엉겨서 疾患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 證象은 風溫表證이 보이면서 “肢厥頭腫 譫語遺尿”한 證象들이 보이는 것이다. 이 때에는 단순히 辛涼解表만을 시켜서는 效果를 거둘 수 없고 解表 滌痰하는 藥을 함께 써야 한다. 一般의 으로는 桑葉, 菊花, 連翹, 白薇, 牡丹皮, 山梔, 羚羊角, 竹茹, 貝母, 天花粉, 旋覆花, 蘿菴子 등의 藥으로 辛涼透邪하고 안으로는 痰熱을 疏泄시킨다.<sup>26)</sup>

이상의 內容을 考察해 보면 痰熱兼表證이란 風溫과 痰濁이 함께 病因을 이룬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해서 常用하는 藥들이 辛涼解表하면서 滌痰을 함께 하는 藥이란 것을 알 수 있다.

### 2) 氣熱兼痰證

熱이 氣分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治療되지 않으면 痰과 熱이 서로 엉기게 된다. 때번 清氣方 중에 滌痰시키는 藥을 加入하면 病이 確然하게 달라지는데 이것을 王氏는 “重病輕取之法”이라고 하였다. 만일 夏月에 外感을 당하여 오랫동안 治療하지를 못하면 그 證象이 胸悶, 頻吐, 咽喉閉塞하며 간혹 가다 譫語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白虎湯가 西洋參, 貝母, 天花粉, 黃芩, 紫菀, 杏仁, 冬瓜仁, 枇杷葉, 竹茹, 天竺黃하는 藥을 써는데 一面으로는 氣分의 熱을 清解하고 一面으로는 化痰시키는 것이다.<sup>27)</sup>

以上の 內容은 熱이 氣分에 있으면서 痰과 熱이 습하여 病이 된 경우를 指摘한 것이다. “重病輕取之法”이란 痰熱이 서로 엉겨서 생긴 重한 病에 清氣시키는 가벼운 藥들을 사용한다는

26) 吳家清, 上揭書. p.31.

27) 吳家清, 上揭書. p.31.

뜻으로 思料된다.

### 3) 營熱夾痰證

“五志內燔 溫邪外迫 不必由衛及氣 自氣而營 急于清營”(《王氏醫案釋注》)라고 하였는데 그 證象은 狂妄하여 制壓할 수가 없으며 大渴, 不寐, 目赤, 苔黃, 脉洪滑弦數 등의 證象이 있다. 항상 犀角地黃湯 加 金銀花, 石膏, 知母, 石斛, 梔子, 貝母, 天花粉, 蘭草, 石菖蒲, 竹瀝, 竹茹, 竹葉 등과 같이 涼營滌痰하는 藥品을 사용하였다. 이런 治療를 통하여 “榮陰漸振 推邪外出”하는 效果를 얻는다고 하였다.<sup>28)</sup>

이상은 溫邪가 榮分에 곧장 侵犯하여 發生하는 痰證으로 涼營滌痰의 治法을 使用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內容이다.

### 4) 血熱夾痰證

熱邪가 營血에 깊숙히 들어가서 舌絳, 神昏하지만 가슴이 답답하여 拒按하고 혹은 혀는 비록 붉지만 潤澤하거나 白苔가 있다면 이는 痰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단순하게 涼潤遏伏하는 藥品으로만 投與할 것이 아니라 辛開滌痰하는 藥品을 加味하여 治療하면 매우 效果가 있다. 그 證象이 寒熱如瘧, 脣腫咽痛, 舌乾短硬 등의 證象이 있는 경우에는 犀角地黃湯 加 玄蔘, 知母, 金銀花, 天竺黃, 天花粉, 牛膽南星, 石菖蒲, 竹瀝 등의 藥物을 써서 涼血滌痰시켜서 治療하였다.<sup>29)</sup>

이상은 熱邪가 血分에 侵犯하여 여러 證象들이 생기지만 白苔로 안에 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內容으로 이 때에는 涼血滌痰하는 治法을 써야 한다고 한 것이다.

### 5) 痰迷心竅證

“痰有所滯 皆能壅閉經絡 格塞心竅”라고 하였는데 그 證象은 神昏, 譫語, 面色灰黯, 戴眼, 口開, 脉尙不絕 등이 보인다. 王氏는 犀角에 貝母, 竹瀝, 天竺黃, 牛膽南星, 石菖蒲 등을 加味하여 湯藥으로 사용하며 證象에 따라 安宮牛黃丸, 紫雪丹, 至寶丹과 같은 藥을 吞服하게 한다.<sup>30)</sup>

溫病이 衛分, 氣分, 榮分, 血分의 順序로 病이 깊어지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고 그 마지막 단계가 心包絡이나 心竅를 侵犯하여 生命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境地에 이른다는 것도 周知의 사실이다. 王氏는 이런 境遇에 夾痰한 경우를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이다.

28) 吳家清, 上揭書. p.32.

29) 吳家清, 上揭書. p.32.

30) 吳家清, 上揭書. p.32.



6) 肝熱夾痰證

“肝鬱氣結 鬱則生熱”이라고 하였는데 熱이 津液을 끓여서 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機轉에 대해서 “眞陰素虧 水不涵木 風陽內熾 搏液成痰”(《王氏醫案釋注》)이라고 하였다. 그 證象은 目赤, 目痛이 있고 오랫동안 治療하여도 잘 낫지를 않는다. 점차 腹中에 痞痛이 있으며 飲食이 잘 내려가지를 않고 苔黃, 脈弦 등의 證象이 생긴다. 治法은 “清解方中寓鑷痰流氣通胃舒肝之品”이라고 하였다. 肝熱이 痰을 끓이는 者에게는 항상 左金丸에 牡丹皮, 梔子, 川棟草, 羚羊角, 鱉甲, 白芍藥 등의 藥으로 舒肝解熱하고 竹茹, 陳皮, 半夏, 桔梗, 旋復花 등으로 化痰하게 하였다. “肝鬱痰滯”한 患者에게는 金鈴子散 合 雪羹煎을 가지고 當歸蘆薈丸이나 礞石滾痰丸을 吞服하게 하였다.<sup>31)</sup>

이상의 內容은 肝氣가 鬱結되어 發熱하게 된 경우에 그 열이 津液을 끓여서 이루어진 痰證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그 治法은 清解시키는 處方을 主方으로 삼고 그중에 鑷痰, 流氣, 通胃, 舒肝시키는 藥을 加味하여 治療한다고 하였다.

7) 脾虛夾痰證

“脾虛飲滯”와 “濕濁內燔”, “中虛而健運失職”에 반드시 痰을 겸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였는데 證象은 수년간 泄瀉를 하고 治療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보인다. 治法은 “培中泄木 行水鑷痰”해야 한다고 하였다. 唐蔘, 白朮, 茯苓, 橘皮, 半夏, 肉桂, 白芍藥, 木瓜, 川棟草, 蒺藜 등을 사용하면 점차 治療가 된다고 하였다.<sup>32)</sup>

다른 臟器와는 달리 脾臟은 痰을 形成하는 原因이 脾氣가 虛하여 運化機能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脾臟에서는 脾虛夾痰證을 提示하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8) 肺熱夾痰證

“餘熱逗留于肺 阻氣機之肅降 搏液以成痰”이라고 하였는데 그 證象은 咳嗽, 스스로 痰이 허리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것, 痰을 吐出하는데 매우 찬 것, 咽喉가 阻塞된 것, 大便이 묽고 小便이 자주 마려운 것, 舌苔의 색깔이 黃膩한 것, 脈이 弦滑한 것 등이 보인다. 治療는 清肺滌痰해서 “肺氣展布 痰始能行”하면 된다고 하였다. 葦莖湯 加 貝母, 知母, 天花粉, 竹茹, 杏仁, 枇杷葉, 柿蒂를 사용한다.<sup>33)</sup>

31) 吳家清, 上揭書. p.32.  
 32) 吳家清, 上揭書. p.32.  
 33) 吳家清, 上揭書. p.33.

9) 腎虛夾痰證

腎陽이 虛衰하여 水濕과 津液이 氣化가 잘 되지를 않으면 모여서 痰이 된다. 그 證象은 倦怠, 嗜臥, 便秘, 痰多, 口甘, 脈微無神 苔黑膩하다고 하였다. 王氏는 이러한 虛痰과 久病에 마땅히 溫補腎陽, 補火生土를 해야 하고 滌痰하는 藥으로 佐를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藥은 人蔘, 肉桂, 白朮, 熟地黃, 鹿角, 伏苓, 山茱萸, 免絲子, 杜沖, 紫石英, 肉蓯蓉, 霞天曲, 胡桃, 沈香 등의 藥을 加減하여 사용하였다.<sup>34)</sup>

腎臟의 경우는 腎陽이 虛衰하여 水濕과 津液이 氣化가 되지를 않아서 痰이 되는 경우와 腎陰이 虛하여 虛火가 發生하여 이로 인해서 痰이 發生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腎陽虛를 提示하였고 뒤에 陰虛夾痰證을 설명하면서 腎陰이 虛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10) 痰阻胸膈證

“肝陽上浮 肺氣下降 痰熱阻痺 邪乃逗留”라고 하였는데 그 證象은 面赤, 不眠, 煩躁, 譫語, 口甘, 口渴, 小便澀痛, 胸痞, 便結하다고 하였다. 그 治療는 豁痰理氣, 展布胸陽, 升降氣機, 開胸滌痰을 위주로 하였는데 매번 效驗이 있었다고 한다. 臨床의으로는 小陷胸湯加味方을 사용하는데 혹은 溫膽湯, 舌羹 三方을 合用하기도 한다. 身體가 充實하고 痰이 盛한 자는 다시 竹瀝을 넣고 礞石滾痰丸을 吞服하여 그 痰을 없앤다.<sup>35)</sup>

11) 氣滯痰阻證

“蓋萬病非熱則寒 寒者氣不運而滯 熱者氣亦壅而不運 氣不運 則熱鬱痰生 血停食積 種種阻塞于中矣”(《溫熱經緯》)라고 하였는데 그 證象은 四肢清冷, 涎沫上湧, 二便澀少, 神氣不爽, 脈沈澀滯하다. 治療는 理氣蠲痰해야 하는데 枳實, 橘皮, 厚朴, 大腹皮, 絲瓜絡, 鬱金を 가지고 理氣시키고 杏仁, 貝母, 竹茹, 旋復花, 瓜蒌仁, 枇杷葉, 石菖蒲, 半夏, 竹瀝 등으로 化痰하여 氣運이 順하면 痰이 맑아진다고 하였다.<sup>36)</sup>

12) 氣虛夾痰證

“久病氣虛 痰飲阻其清陽 清陽之氣不司旋運也”하기 때문에 氣虛夾痰의 證候가 發生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此證一味治痰 則氣愈虛 故以補氣治本 豁痰治標”(《王氏醫案釋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證象은 久病에 胸膈에 痰이 많은 것인데 標本을 兼治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여러 藥들을 가지고 전혀 治療가 되지 않는 경우에 人蔘, 黃芪, 伏苓, 白朮에 滌痰시키는 藥을

34) 吳家清, 上揭書. p.33.

35) 吳家清, 上揭書. p.33.

36) 吳家清, 上揭書. p.33.

加味하여 益氣시키면서 滌痰시키는 治法을 쓴다.<sup>37)</sup>

### 13) 痰瘀交阻證

옛날부터 “痰瘀相因”의 學說이 있었는데 王氏는 “瘀血既久 亦能化爲痰水”라고 하였다. 熱氣가 血室에 들어가면 如狂이나 發狂의 蓄血證이 보이고 또한 津液과 營血을 끊어서 痰을 이루기도 하며 그 때문에 “痰瘀相因”의 여러 證象이 나타난다. 그 證象은 寒熱往來, 壯熱, 狂燔, 目赤, 譫語, 氣逆, 痰多, 脘悶, 腹脹 등이 있다. 王士雄은 항상 “痰瘀同治法”을 썼는데 桃仁承氣湯에 竹茹, 牛膽南星 등의 清熱滌痰시키는 藥品을 加하여 治療하였는데 매번 잘 나왔다.<sup>38)</sup>

### 14) 肝風夾痰證

“眞陰素虧 水不涵木 風陽內熾 搏液成痰”이라고 하고 또 溫病에 만약 溫補法을 잘못 施行하면 안으로 痰火를 生하여 風陽을 動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證象은 四肢가 抽搐하고 厥冷하면서 目瞪, 神呆, 氣喘, 舌絳, 不語 등의 證象이 보인다. 항상 清熱, 熄風, 滌痰의 三法을 併用한다. 清熱에는 犀角, 黃芩, 黃連, 川棟草를 쓰고 熄風에는 羚羊角, 龍骨, 牡蠣, 鱉甲을 쓰고 滌痰에는 牛膽南星, 旋復花, 貝母, 石菖蒲, 竹茹 등을 쓴다.<sup>39)</sup>

### 15) 痰熱互結證

熱이 盛하여 津液을 傷하면 痰이 되며 痰이 쌓여도 火로 化할 수 있다. 痰과 熱이 結合되면 서로 因果關係를 가지게 된다. 證象은 尿閉, 口渴, 苔黃, 脉堅, 體實 등의 證象이 있다. 治法은 清熱과 滌痰을 서로 併合한다. 藥은 犀角, 知母, 黃柏, 黃芩, 川棟草, 梔子 등의 苦寒清熱하는 藥에 瓜蒌仁, 竹茹 등의 滌痰시키는 藥을 加한다.<sup>40)</sup>

### 16) 痰濕阻痺證

“痰濕蘊積 氣化不行 提表助其升逆 涼潤碍其樞機”라고 하였는데 그 證象은 惡寒, 微熱, 二便澀滯, 胸膈悶痛, 苔膩, 不渴, 脉緩滑하다. 治療는 “清宣展布 芳香化濕”하여 滌痰한다고 하였다. 佩蘭, 半夏, 滑石, 竹茹, 厚朴, 通草, 薏苡仁, 蔻仁, 枇杷葉, 葶藶 등의 辛香한 味를 가지고 氣機를 運轉하게 하고 痰濕이 化하게 하는 것이다.<sup>41)</sup>

37) 吳家清, 上揭書. p.34.

38) 吳家清, 上揭書. p.34.

39) 吳家清, 上揭書. p.34.

40) 吳家清, 上揭書. p.34.

41) 吳家清, 上揭書. p.35.

### 17) 陰虛夾痰證

眞陰이 평소에 虧虛하고 榮陰이 燒灼되어 陰虛하면서 痰이 있는 자는 證象이 痰嗽을 오래 앓고 舌乾, 舌質紅, 脈細澁 등이 있다. 王氏는 眞陰이 回復되지 않으면 痰熱이 풀어지지 않으므로 開痰藥과 養陰藥을 合用할 것을 主張하였다. 藥物로는 沙蔘, 天花粉, 蘆根, 百合, 石斛, 竹茹, 貝母, 熟地黃, 紫菀, 燕窩, 麥門冬, 枇杷葉, 葶藶, 橘皮 등을 사용하여 “顧陰豁痰 兩善其長” 한다고 하였다.<sup>42)</sup>

### 18) 陽明痰結證

熱이 裏部에 結聚되어 있으면 津液만 耗傷시키는 것이 아니라 津液을 끓여서 痰이 되게 하기가 쉽다. 그 證象은 譫語, 發狂, 昏沈, 不語, 肢冷, 目閉, 遺尿, 苔黃하고 脈은 弦大하면서 緩滑하다. 그 治療는 攻下法을 쓰면서 開泄滌痰시키는 藥을 加味하여 肺胃를 通絳시킨다. 表裏, 上下가 通하면 邪熱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處方은 大承氣湯 加 竹茹, 石菖蒲, 竹瀝, 蘿菔子 등을 쓴다. 이는 《溫病條辨》의 宣白承氣湯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효능을 가진 藥으로 보인다.<sup>43)</sup>

### (3) 痰證의 辨證治療時에 보이는 用藥의 特徵

王氏의 痰證에 대한 診治의 見解에 대해서도 《蒼萃溫病學說的王士雄》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그 內容을 爲主로 考察하기로 한다.

王氏는 痰證에서 우선 寒熱과 眞僞를 가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渴喜熱飲 渴不多飲 …… 皆屬痰飲阻遏氣機 此所以必需多用痰藥也”<sup>44)</sup>라고 하였다. 이는 痰이 氣機를 막기 때문에 津液이 上升하지를 못하고 그 때문에 口渴, 喜熱飲하거나 혹은 不多飲하는 證象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白痰은 寒에 속하고 黃痰은 熱에 屬한다는 說에 너무 엄매이지 말라는 主張을 하고 있다. 마땅히 脈證을 合參하여 治療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世人但以痰色辨寒熱 每多誤治 凡審證須兼各證與脈并審 不可專以痰色爲據”<sup>45)</sup>라고 하였다. 아울러, 怪病일수록 痰이 많다는 說에 贊成을 하고 있는데 “凡脈證多怪 皆屬於痰”<sup>46)</sup>이라고 하였다. 또 痰을 끼고 있는 證象들에 대해서 胸悶, 脘悶, 腹脹, 不飢不食, 涎沫上湧, 咳嗽氣逆하면서 口乾, 口渴하면서 不飲水, 二便澁少, 或便溏한다고 하고 있고 痰을

42) 吳家清, 上揭書. p.35.

43) 吳家清, 上揭書. p.35.

44) 吳家清, 上揭書. p.35.를 再引用함.

45) 吳家清, 上揭書. p.35.를 再引用함.

46) 吳家清, 上揭書. p.35.를 再引用함.

띠고 있는 脉은 滑脈이 많이 보인다고 하면서 그 兼證에 따라서 浮滑, 沈滑, 緩滑, 滑數 등의 證象이 보인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몸이 豐滿하면서 痰이 盛한 者는 沈澁한 脈이 보이기 쉽다고 하고 있다. 혀를 보고 痰의 情狀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溫熱病舌絳而白苔滿布者 宜清肅肺胃 更有伏痰內盛 神氣昏瞶者 宜開痰爲治”<sup>47)</sup>라고 하였다. 또 “絳而澤者 雖爲營熱之證 實因有痰 故不甚干燥也 問若胸悶者 尤爲痰據 不必定有苔也”<sup>48)</sup>라고 하였다. 이는 夾痰의 舌이 舌苔가 많고 白膩하거나 혹은 黃膩, 灰膩하며 舌質은 絳色이면서 潤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王氏가 痰을 治療하는 것은 주로 清滌시키는 것인데 “欲清氣道之邪 必先去其邪所依附之痰”<sup>49)</sup>이라고 하였다. 溫病에 痰을 끼고 있는 證象에서는 氣機를 잘 돌아가게 하여 治節을 펼치게 하는 것을 強調하고 있는데 “舒展氣機 則痰行熱降 諸恙自瘳矣”<sup>50)</sup>라고 하고 있다. 王氏는 辨證論治에 더욱 能熟하였는데 항상 證象에 따라서 瓜蒌薤白湯, 二陳湯, 橘皮竹茹湯, 旋復花代赭石湯, 千金葶藶湯 등을 選用하였고 더욱이 溫膽湯, 小陷胸湯, 當歸蘆薈丸의 應用에 있어서 臨床經驗이 풍부하였다. 用藥에는 輕清流動시키는 藥을 選用하였는데 항상 竹茹, 半夏, 貝母, 石菖蒲, 瓜蒌仁, 橘皮, 橘絡, 絲瓜絡, 杏仁, 冬瓜子, 桔梗, 枇杷葉, 天花粉, 竹瀝, 牛膽南星, 蘿菥子 등을 選用하였다.<sup>51)</sup>

以上에서 敘述한 內容을 綜合하면 王氏는 痰證의 論治에 아주 獨步의인 位置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一面으로는 “百病兼痰”이라고 하였고 “無一病不關乎痰”이라고도 하였다. 다른 一面으로는 滌痰시키는데 “清靈流動”하는 藥品을 많이 썼는데 그를 통해서 氣機를 움직이게 하여 藏府의 機能을 調整하고 人體의 驅邪機能을 回復하게 하면 氣運이 順誕하게 흐르고 痰이 맑아져서 여러 證象들이 모두 治療된다고 보고 있다.

### (3) 霍亂의 診斷과 治療

王氏는 霍亂을 熱霍亂과 寒霍亂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으며 藥物도 매우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霍亂有因飲食所傷者 有因濕邪內蘊者 有因氣鬱不舒者 但既有發熱頭痛 身疼惡寒之表證 則治法必當兼理其表 此仲聖五苓散之義也 然表證之可兼者 不獨寒也 如吸受溫熱風暑之邪者 皆能兼見表證 舉隅三反 活法在人 其溫暑直侵脾胃 與內邪相協爲瘧 迨裏氣和而吐利之 則邪復還之表 而發爲熱者 駕輕湯主之 寒霍亂後表不解者 有仲聖之桂枝法在”<sup>52)</sup>라고 하면서 霍亂의 原因과 機轉이 자세하다는 것을 提示하고 있다. 이에 대한 現代 中國의 研究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7) 吳家清, 上揭書. p.36.를 再引用함.

48) 吳家清, 上揭書. p.36.를 再引用함.

49) 吳家清, 上揭書. p.36.를 再引用함.

50) 吳家清, 上揭書. p.36.를 再引用함.

51) 吳家清編著, 上揭書. p.35 - 36.

52) 曹炳章原輯, 隨息居霍亂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50.

1) 霍亂의 機轉, 診斷, 治療<sup>53)</sup>

霍亂은 갑작스럽게 發病하여 吐瀉를 主症으로 삼는 消化器疾患이다. 《重訂隨息居霍亂論》과 《王氏醫案釋注》 중에 실려 있는 霍亂에 대한 醫案은 대략 38례가 되고 그중에 熱證에 속하는 것이 31례이며 寒證이 7례, 虛證이 3례, 實證이 35례이다. 그 內容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霍亂의 原因에는 寒熱의 차이가 있는데 다만 臨床의으로는 종종 寒熱이 서로 섞이고 虛實이 혼동되어 있어서 分辨하기가 어렵다. 王氏는 排泄物, 舌脈, 口渴與否 등으로 病源의 性質을 구분하고 治療의 原則을 정하였다. 예를 들면 王氏는 “霍亂轉筋 是危險之病 …… 此證有陰陽之異 治法有寒熱之殊”라고 하였다.(《重訂隨息居霍亂論》) 그것을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項目		寒	熱
排 泄 物	嘔吐物	매우 맑고 酸臭나 酸味が 없다.	더럽고 濁하며 쉰 내가 난다.
	大便	穀食이 제대로 消化되어 있지 않다.	역겨운 냄새가 난다.
	小便	맑고 오줌줄기가 길다.	尿赤하면서 오줌줄기가 짧다.
轉筋	四肢가 拘急하면서 屈伸이 부자연스럽다.	抽搐하면서 痛症이 있고 종아리가 堅硬해서 마치 돌과 같고 쥐가 날 때 痛症이나 시린 느낌이 심하다.	
口渴	渴症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	煩渴하면서 시원한 물을 마시기를 좋아한다.	
舌苔	舌苔가 白薄하면서 粘膩하지 않다.	舌苔가 粘膩하거나 혹은 黃膩하다.	
脈象	隱伏하면서 遲脈을 검하고 있다.	隱伏하면서 數脈을 검하고 있다.	

治法을 세우는 데는 氣機를 調暢하는 것을 重要時하였다.

王氏는 脾胃가 中樞를 鎮壓하며 清濁의 升降을 主管하는 것으로 보아 升降에 法度가 있으면 水道가 잘 疏通하여 비록 客邪에 감하였더라도 스스로 없어져서 留着되어 病이 되지를 못하며 法度를 잃으면 濕이 생하고 升降의 기들이 滯할 뿐만 아니라 穢濁한 邪氣를 불러들여서 中焦를 쉽게 변하게 하고 腸胃를 어지럽힌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濁不能降而腹病嘔吐 清不能升而泄瀉無噎”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治療에 있어서 病邪를 除去하는데는 반드시 脾胃의 升降機能을 回復하는 것에서 着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展化宣通”이라고 하여 氣機를 舒展시키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면 熱霍亂을 治療하는데 “燃照湯宣土鬱而分陰陽 連朴飲祛暑穢而行食滯”(《重訂隨息居霍亂論》)라고 하였다. 寒濕霍亂을 治療하는데는 理中湯과 五苓散 및 藿香正氣散을 應用하여 辛味와 苦味로 開泄하여 升降의 平常을 回復하고 脾胃

53) 吳家淸, 上揭書. pp.36 - 38.의 內容을 정리함,

를 調和시켜서 藏府의 機能이 協助를 이루게 하고 氣機를 調暢시키게 하였다. 그에 대해서 “卑升降不愆 周流無滯 揮霍擾亂 于是弭焉”이라고 하였다.

治療의 特徵의인 點은 清化를 爲主로 하였다는 것이다.

王氏는 霍亂 中에는 熱證이 많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熱霍亂의 病因에 대해서 熱氣, 混濁, 穢氣가 합하여 邪氣가 된 것이라고 보았다. 대개 熱霍亂의 發生은 매우 더운 해나 暑濕이 熏蒸하는 季節에 많이 發生한다. 그 때에는 濕이 쌓이고 中焦가 運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暑穢한 氣運이 쉽게 潛伏되며 濕熱이 脾胃에 內蘊하며 樞機를 阻滯시켜서 升降이 그 職分을 잃으며 清濁이 서로 간섭하여 吐瀉의 證象이 있게 된다. 아울러, “諸鬱之發 必從熱化 土鬱者 中焦濕盛 而升降之機乃窒”(《重訂隨息居霍亂論》)이라고 하여 治法을 세울 때는 반드시 秋氣를 旋轉시켜서 氣化가 잘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組方에는 輕清하고 流動하는 藥品을 잘 사용하여 清熱祛濕하고 濁氣를 引導하여 下行하게 하고자 하였다. 熱이 내리고 濕이 除去되어 升降에 法度가 있게 되면 吐瀉는 自然히 治療된다.王氏의 38例에 달하는 霍亂醫案 中에 虛證과 寒證에 해당하는 7례를 제외하고는 31례가 모두 熱霍亂에 속하며 대부분 清熱化濕하는 약품으로 효과를 보았다. 그가 提示한 蠶矢湯, 連朴飲, 燃照湯 등의 處方이 모두 여기에 그 根源을 두고 있다. 선택한 方藥 中에 清熱에는 黃芩, 黃連, 梔子, 黃柏, 金銀花, 竹茹 등을 많이 사용하였고 除濕에는 蠶砂, 薏苡仁, 滑石, 通草, 石菖蒲, 厚朴, 半夏 등의 祛濕化痰하는 藥을 分別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蠶砂를 霍亂을 治療하는 主藥으로 삼고 있는데 “既引濁下趨 又能化濁使之歸清”이라고 하였다.

病의 先後에 溫補法을 주의해서 使用하였다.

霍亂의 病邪는 질질 끄는 경우가 많아서 迅速하게 除去하기가 어렵다.王氏는 “守險以防再來” 할 것을 強調하고 있는데 熱이 빨리 내려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며 舌苔의 색깔이 正常이 아니며 오줌이 澀滯하여 잘 나오지 않는 등의 證象이 있으면 이는 熱이 완전히 물러나지를 않은 것이다. 이런 경우는 霍亂이 완전히 治療되었다고 생각하고 補藥을 줘서 氣運이 滯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는 生薑의 辛溫味와 饴糖의 甘味는 濕을 助長하고 술은 火를 도우므로 모두 끊고 남은 邪氣를 清滌해야만 하므로 溫補는 慎用해야 한다고 하였다.

## 2) 霍亂에 쓰이는 藥材

以上과 같이 霍亂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王氏는 《隨息居霍亂論卷下》에서 霍亂에 사용할 특이한 藥材들의 藥性을 提示하고 있다. 原蠶沙는 霍亂을 治療하는 主藥으로 보았다. 黃芩은 溫病의 霍亂을 治療하는 主藥이라고 하였는데 吐下하는 證象에 熱邪가 上焦에 痞結되고 가슴이 편안하지 않은 者에게 사용한다. 또 黃連과 半夏와 同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石膏는 暑熱의 霍亂證에 쓰는 主藥이라고 하였다. 吐利하면서 舌苔가 黃色이며 大渴한 者에게 사용한다. 밖으로 風寒을 끼고 있는 者에게 紫蘇, 桂枝, 香薷, 生薑을 佐하여 사용하고 안으로 痰을 끼고 있는 자에게는 厚朴, 半夏, 菖蒲, 橘紅과 같은 藥을 함께 쓴다고 하였다. 寒濕을 검하고 있는 者는 防己, 細辛, 海桐皮, 萎靈仙과 같은 藥을 함께 쓴다고 하였다. 滑石은 濕熱霍亂의 主

藥이라고 하였다. 熱이 심한 者는 石膏를 佐藥으로 쓰고 濕이 심한 者는 茵陳으로 佐하였다. 薏苡仁은 霍亂에서 轉筋과 小便秘를 主證으로 하는 경우의 主藥으로 보았다. 木瓜는 霍亂에서 轉筋하기는 하지만 小便是 秘澁하지 않은 경우의 主藥으로 보았다. 香薷는 여름철에 찬 물로 목욕하다가 風을 맞아서 霍亂이 된 경우에 主藥으로 보았다. 扁豆는 中虛하여 暑濕에 의하여 霍亂이 되는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西洋人蔘은 虛人의 霍亂에 主藥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人蔘이라고 하지 않고 西洋人蔘이라고 한 것은 藥性이 人蔘과 西洋蔘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原因이 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枳殼과 桔梗, 蘿菴子是 食滯에 의한 霍亂의 主藥이라고 보았다. 梔子豉와 石菖蒲는 穢濁에 의한 霍亂의 主藥이라고 보았다. 川棟子와 黃柏, 桑葉, 絲瓜絡은 霍亂이 있으면서 肝火가 성한 자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茅根과 地丁, 益母草, 蒲公英은 霍亂이 있으면서 血分의 熱이 熾盛한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竹茹와 石斛, 蘆根, 梔子, 枇杷葉은 霍亂이 있으면서 嘔穢가 있는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厚朴, 蘆菴, 大腹皮는 霍亂이 있으면서 脹滿이 있는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茵陳과 連翹, 綠豆, 絲瓜絡은 霍亂이 있으면서 黃疸이 있는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通草와 車前子, 海金沙는 霍亂에 無尿症이 있는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綠豆와 金銀花, 竹葉, 黃連은 霍亂에 熱藥을 誤服한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旋復花와 紫菀, 麥蘗, 蘿菴子是 霍亂에 誤補한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人蔘과 龍骨, 牡蠣, 甘草, 赤石脂, 禹餘糧은 霍亂에 大虛하여 氣運이 虛脫하고자 하는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桂枝는 傷寒에 霍亂을 겸한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紫蘇, 藿香, 生薑, 厚朴, 白豆蔻는 霍亂이 外寒으로 인한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吳茱萸와 烏藥, 砂仁, 高良薑은 霍亂이 內寒으로 인한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人蔘과 白朮, 甘草, 蓮子는 中虛하면서 寒濕에 의해서 霍亂이 걸린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丁香과 木香, 川椒, 神麴은 과일, 생선과 같은 生冷하여 中氣를 傷하여 霍亂이 걸린 경우의 主藥이라고 하였다. 乾薑, 附子, 肉桂, 硫黃은 陽虛하여 中虛한 경우에 나타나는 霍亂 및 寒霍亂에 寒藥을 잘못 服用한 경우에 쓰는 主藥이라고 하였다. 이 內容을 圖表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藥物	主治 및 用度
原蠶沙	諸霍亂之主藥也
黃芩	溫病轉霍亂之主藥 凡吐下而熱邪痞結上焦 胸次不舒者 并可與黃蓮半夏同用
石膏	暑熱霍亂之主藥 凡吐利而苔黃大渴者 并宜用之 外挾風寒者 佐以紫蘇桂枝香薷 生薑之類 內挾痰滯者 佐以厚朴半夏菖蒲橘紅之類 下兼寒濕者 佐以防己細辛海桐皮威靈仙之類
滑石	濕熱霍亂之主藥 熱甚者佐石膏 濕甚者佐茵陳
薏苡仁	霍亂轉筋溺秘者之主藥也
木瓜	霍亂轉筋溺不秘者之主藥也
香薷	夏令浴水 迎風而霍亂之主藥也
扁豆	中虛而暑濕霍亂之主藥也
西洋人蔘	虛人霍亂之主藥也
枳桔, 蘿菔子	停食霍亂之主藥也
梔鼓, 石菖蒲	穢濁霍亂之主藥也
棟實, 黃柏, 桑葉, 絲瓜	霍亂而肝火盛者之主藥也
茅根, 地丁, 益母, 蒲公英	霍亂而血分熱熾之主藥也
竹茹, 石斛, 蘆根, 梔子, 枇杷葉	霍亂嘔穢之主藥也
厚朴, 蘆朮, 大腹皮	霍亂脹滿之主藥也
茵陳, 連翹, 綠豆皮, 絲瓜絡	霍亂身黃之主藥也
通草, 車前, 海金沙	霍亂無溺之主藥也
綠豆, 銀花, 竹葉, 黃蓮	霍亂誤服熱藥之主藥也
旋覆, 紫苑, 麥蘗, 蘿菔子	霍亂誤補之主藥也
人蔘, 龍骨, 牡蠣, 甘草, 石脂, 余糧	霍亂大虛欲脫之主藥也
桂枝	傷寒轉霍亂之主藥也
紫蘇, 藿香, 生薑, 厚朴, 白豆蔻	霍亂因外寒之主藥也
吳茱萸, 烏藥, 砂仁, 高良薑	霍亂因內寒之主藥也
人蔘, 白朮, 炙甘草, 蓮子	中虛而寒濕霍亂之主藥也
丁香, 木香, 川椒, 神曲	瓜果魚蟹生冷傷中霍亂之主藥也
乾薑, 附子, 肉桂, 硫黃	陽虛中寒而霍亂 及寒霍亂誤服寒藥之主藥也

資料：曹秉文原戡, 上揭書. p.684.

### 3) 霍亂證治에 能通하게 된 배경

王氏가 霍亂의 證治에 能通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中醫歷代各家學說》에서는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王氏가 上海에 居處할 때에 마침 霍亂이 流行하였는데, 病勢가 급속히 漫然되어 “道殣相望”하여 쓰러져 죽은 자가 아주 많았으나 醫者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束手無策이었다. 王氏는 이 病의 證治를 깊이 研究하여 적지않은 確실한 所見을 얻었다.<sup>54)</sup>

이상의 內容에서 알 수 있는 것은 王氏의 臨床醫學은 그 당시 時代狀況과 流行病과 깊은 聯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4) 血症의 診斷과 治療

血症에 대해서도 王氏는 熱과 火를 그 주된 原因으로 보고 있다. 그에 대해서 《清代名醫醫術薈萃》에서는 “王氏는 血症에 대해서 《內經》과 仲景의 醫論을 자세히 考證하고 널리 重方을 採集하여 독특한 자신의 學術을 이루었는데 全體적으로 辨證施治를 爲主로 하며 虛實의 兩端에 立脚하여 辨證을 始作하였다. 實證의 경우는 胃中積熱, 肝火上亢, 肝鬱癡瘀, 瘀久化熱의 機轉을 거쳐서 傷絡吐血하게 된다고 하였고, 熱邪가 肺에 맺히면 肺絡을 傷하게 하여 咳血하게 한다고 하였다. 虛證의 경우는 腎水虧損, 虛火上炎에 의하여 肺를 傷하게 되어 咳血, 鼻衄 등의 證象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sup>54)</sup>라고 整理하고 있으며, 《薈萃溫病學說的王士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 吐血

吐血은 血이 胃로부터 嘔吐를 통하여 나오는 일종의 疾患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特徵은 量이 많고 色은 鮮紅色이거나 暗紫色이며 飲食物의 찌꺼기가 보이고 덩어리가 보이기도 하고 그 形勢가 爆裂하다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病因：吐血的 原因에 대해서 王氏는 두 종류를 提示하고 있는데 하나는 胃腑 자체의 疾患으로 辛辣한 熱物을 오랫동안 먹어서 胃中에 熱이 쌓이고 熱이 오래되어 胃絡을 損傷시켜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른 臟器의 疾患이 胃腑에 影響을 미치는 것을 가리킨다.

辨證論治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胃熱：王氏는 柯韻柏의 말을 引用하여 “火炎土燥 終非苦寒之味所能治 …… 乃瀉胃火生津液之上劑也”라고 하였다. 臨床의으로는 白虎湯이 主方이 되고 西洋蓼의 甘寒, 淸熱, 生津하는 藥性과 大黃의 淸火, 涼血하는 藥性을 加味하였다. 만일 痰이 있다면 竹茹, 天花粉 등의 藥으로 淸熱滌痰하였다. 兼하여 肺火에 痰을 끼고 있다면 葦莖湯을 合하여 淸肺化痰하는 것을 주로 하였다. 동시에 王氏는 苦寒하고 甘膩한 藥品을 濫用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服芩連則煩渴益甚 以苦能化燥也 用生地即悶滯不飢 以甘能緩中也”라고 하였는데 매우 妥當한 말이라고 思料된다. 肝火가 上亢하면 胃絡을 損傷시킨다. 肝은 藏血하는 臟器로 體는 陰이면서 用은 陽인 臟器이다. 여기에 忿怒가 더해지면 肝을 傷하고 生薑, 술 등을 久服하면 肝氣가 鬱하여 火로 化하게 하여 그 損傷이 胃絡에까지 미치게 된다. 王氏는 淸肝火하고 熄風陽하는 藥을 內服하여 標治를 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는데 藥은 犀角, 羚羊角, 金銀花, 梔子 등으로 淸肝火, 熄風陽하게

54) 裘沛然主編, 上揭書. p.322.

55) 徐榮慶主編, 清代名醫醫術薈萃,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7. p.347.

하였으며 西洋參, 生地黃, 玄蔘 등으로 眞陰을 크게 補養하여 固本하게 하였으며 童便을 가지고 降火止血하게 하였다. 外用으로는 龍骨, 牡蠣를 가루를 내어서 발라서 땀이 나서 津液과 氣運이 虛脫해지는 것을 防止하였고 生附子를 湧泉穴에 붙여서 浮陽을 끌어 내리게 하였다. 肝氣가 鬱滯하여 瘀血이 凝結된 경우 : 肝은 藏血하는 臟器로 條達하기를 좋아한다. 肝木이 舒暢하지 못하면 氣鬱하여 血 또한 瘀滯하고 瘀滯가 오래되어 熱로 化하면 血絡을 傷하여 血熱이 妄行하여 吐血하게 된다. 王氏는 舒肝解鬱하고 涼血化瘀하는 治法을 사용하였는데 旋復花湯 加減을 選用하였다. 旋復花로는 平肝降氣하고 丹蔘과 蘿藦子로는 活血化痰하고 牡丹皮, 黃芩, 梔子, 側柏葉으로는 清熱涼血하였다. 그리고, 鬱金을 오묘하게 사용하여 瘀血이 化하고 血이 妄行하지 않게 하였다.

氣虛해서 血을 統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病理에 대해서 王氏는 “氣虛以血無統攝”이라고 하였고 그 證象은 吐血이 있으면서 少氣, 懶言, 頭昏, 乏力, 脉虛弱或虛大하다고 하였다. 治療는 補氣하여 攝血하는 方法을 사용하였는데 處方은 四君子湯 加 黃芪, 白扁豆, 山藥, 白芍藥酒炒 등을 選用하여 脾胃를 健旺하게 하여 氣運이 充足해져서 血이 스스로 堅固해지게 하였다. 뒤에 熟地黃, 阿膠, 紫石英, 麥門冬, 五味子, 龍骨, 牡蠣를 加味하여 調治한다.

氣陰이 모두 虧損된 경우가 있는데 王氏는 “氣分之陰虧”하여 血이 經絡에 돌아가지를 못한다고 하였고 “溫補非其所宜 滋填妨碍運納”이라고 하였다. 이런 種類의 證候는 氣虛의 證象이 나타나는 것 말고도 “肌膚枯澁 口渴” 등의 證象이 있게 된다. 王氏는 이처럼 양쪽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甘涼한 藥으로 肺胃의 氣陰을 滋養시키는 方法을 착안해 내었는데 補氣와 滋陰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氣分の 陰이 回復되면 억지로 止血하지 않더라도 血이 스스로 그치게 된다. 處方에는 人蔘과 黃芪를 가지고 補氣攝血하고 天門冬, 麥門冬, 知母, 百合, 玉竹, 石斛으로 養陰하였다. 枇杷葉을 佐藥으로 사용하여 肺氣를 肅降시키고 木瓜, 白芍藥, 桑葉을 사용하여 柔肝시키며 逆氣를 抑制한다.

陰虛陽浮한 경우가 있는데 王氏는 眞陰이 虧損하고 陰虛하여 火가 浮越하며 攝納시키는 機能을 잃어서 孤陽이 上越하고 血絡이 損傷을 당한 것이라고 그 病理機轉을 理解하였다. 그 證象에 대해서 “面有紅光 脉形豁大”, “足冷”하다고 하였다. 處方은 六味地黃湯을 選用하여 滋肝益腎하고 少量의 肉桂를 써서 火를 끌어내려서 下元으로 돌아오게 하였는데 그 효과가 더욱 좋았다.<sup>56)</sup>

## 2) 咳血

原因 : 王氏는 咳血이 肺熱과 肺腎의 陰虧로부터 惹起된다고 보았다.

辨證論治 : 王氏는 咳血에는 虛實의 구별이 있다고 보았는데 實한 경우는 肺熱을 清泄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고 虛한 경우는 潤肺와 滋補시키는 것을 爲主로 하였다.

熱이 肺에 結聚된 경우에 대해서 王氏는 그 證象이 “痰中帶血 二便不通 氣喘而厥 冷汗腹脹”

56) 吳家清, 上揭書. p.38 - 41.

하다고 하였고 또 “脉洪大 按腹如灼”하다고 하였다. 王氏는 千金葦莖湯에 梔子, 貝母, 天花粉, 海蛇를 加하여 肺熱을 清泄시키고 川棟草, 旋復花 등을 사용하여 平肝시키고 降火시켰다. 外用으로는 田螺, 大蒜, 車前草를 찢어서 臍下에 붙여서 熱을 끌어서 下行하게 하여 二便을 通利시켰다.

肺腎의 陰이 虧損된 경우가 있는데 그 證象에 대해서 王氏는 “痰血頻咯 神瞽耳聾 不飢大渴 徹夜無眠 溲少”하다고 하였고 “舌絳無津”하다고 하였으며 “脉皆細數”하다고 하였다. 治療는 潤肺, 滋腎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王氏는 百合固金湯을 應用하였다. 百合, 西洋參, 麥門冬, 天門冬, 玉竹, 燕窩, 梨汁, 藕汁 등으로 潤肺生津시키고 生地黃, 金銀花로 滋陰, 清熱시키고 龜板으로 腎陰을 滋養시키며 竹茹, 貝母로 清熱化痰시켰다.<sup>57)</sup>

### (5) 中風의 診斷과 治療

中風은 또 “卒中”이라고도 한다. 이 病의 治療에 있어서 王氏는 證候에 따라서 通腑化痰, 清熱蠲痰, 平肝熄風, 清火解毒하는 治法을 選用하였다. 그에 대해서 《蒼萃溫病學說의 王士雄》에 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痰熱腑實證 : 이는 中腑閉證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肝陽이 暴亢하여 氣化가 陽明에 閉塞되어 風痰이 經絡에 막힌 것을 의미한다. 그 證象은 “半身不遂 舌乾不語 面赤便閉 腹脹息粗 苔裂舌絳 脉洪滑弦數”하다고 하였다. 王氏는 이런 경우에 陽明의 閉結을 통하게 하고 經絡의 風痰을 淸소하는 治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處方은 大黃, 麻子仁, 枳實을 가지고 通腑瀉下하고 知母, 天花粉으로 實熱을 除去하고 石菖蒲, 牛膽南星, 竹瀝, 瓜蒌仁으로 開竅豁痰하고 秦芫로는 使藥을 삼으면서 風痰을 除去하게 하고 旋復花로는 經絡을 通行하게 하여 地道가 통하고 陰陽이 一轉하여 病勢가 屯減하는 것을 기다려 養陰清熱하고 滋腎益水하는 治法으로 完治하였다.

痰熱이 絡脈을 막고 있는 證候 : 王氏는 이런 경우의 證象이 “半身不遂 苔極黃膩 脉甚遲緩”하다고 하였다. 治療는 頑固한 痰을 逡逐하는 處方을 사용했는데 竹瀝 한 사발을 가지고 當歸蘆薈丸과 礞石滾痰丸을 吞服하게 하였다.

風痰이 上擾한 證象 : 老年에 腎臟이 虧損되면 肝木이 滋養을 받지 못하여 肝木이 橫逆하고 그 때문에 風이 생기며 五志가 過極하면 火가 되고 火가 津液을 燒灼하면 痰이 된다. 그 때문에 이루어진 風痰이 위로 清竅를 侵犯하는 경우에 이런 證候가 생기게 된다. 그 證象은 半身不遂, 音微, 便澀, 額赤, 苔黃, 脈弦緩或滑하다고 하였는데 王氏는 祛邪시키는 것으로 急先務를 삼으면서 平肝熄風하면서 清熱化痰하는 것을 佐하는 治法을 사용하였다. 處方에는 犀角, 羚羊角, 知母, 白薇, 桑枝를 사용하여 平肝熄風清熱하였고 貝母, 竹茹, 天花粉, 石菖蒲, 半夏, 桑枝, 豆卷, 絲瓜絡 등으로 活絡化濕滌痰하였다. 外用으로는 꿀을 病이 든 쪽의 四肢에 바르게 하였

57) 吳家清, 上揭書. p.41.

다.

痰火上逆證 : 그 證象은 遺尿, 昏聩, 妄言, 汗多, 面赤, 舌苔黃膩, 脈浮弦洪滑하다. 王氏는 清火 熄風하고 化痰開竅하는 治法을 사용하였다. 藥은 羚羊角, 桑葉, 菊花, 連翹, 金銀花, 知母를 써서 清火解毒, 鎮肝息風하였고 菁蒿, 白薇, 棟實로 陰分の 熱을 清解하고 竹瀝, 石菖蒲로 化痰開竅하고 石斛으로 肺, 胃, 腎의 陰을 길렀다.<sup>58)</sup>

王氏가 中風을 論治한 것을 考察해 보면 그는 風과 火, 痰이 서로 密接하게 聯關이 있다고 認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治療에 있어서는 化痰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데 化痰시키는 治法을 基礎로 삼고 泄火, 熄風, 通腑, 清熱하는 治法을 輔助로 사용하여 治療하였다. 즉 治風하려면 滌痰을 시켜야 하고 痰이 없으면 風이 스스로 없어진다고 본 것으로 이는 매우 타당한 觀點이다.

#### (6) 痢疾의 診斷과 治療

痢疾에 대해서 王氏는 매우 독특한 見解를 가지고 있었는데 “夫瘧疾皆起夏秋 都因濕熱鬱蒸 以致脾胃水穀不運 濕熱灼氣 血爲粘膩 先痛後痢 痢後不爽”(《溫熱經緯》)이라고 그 證候를 설명하고 있고 그 治療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寒熱로 나누어 治療하고 있다. 그에 대한 《薈萃溫病學說的王士雄》의 內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熱에 의한 者는 黃芩, 黃連, 大黃 등을 사용하여 곧장 裏熱을 清解하며 腐濁을 蕩滌시킨다. 飮食이나 과일로 인한 寒證에 속하는 자는 辛溫裏氣하는 것을 治法으로 삼았는데 “若偶食瓜果 水寒卽病 未卽變爲熱 先宜辛溫疏利之劑 …… 若膿血幾十行 療痛後重 初用宣通驅熱 如苓 連 大黃”(《溫熱經緯》)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痢疾이 완성된 경우는 氣血로 나누어 治療하였다. 王氏는 “傷于血分則爲紅 傷于氣者則爲白”이라고 하였고 “行血涼血 如丹皮 桃仁 玄胡索 黑山查 當歸尾 紅花之屬 導氣如木香 檳榔 青皮 枳實 厚朴 橘皮之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正邪의 虛實을 살펴서 治療하였는데 처음 痢疾에 걸려서 身體가 健壯한 사람은 祛邪시키는 것이 急先務이고 久病에 氣衰한 者는 標本緩急을 살펴서 治療해야 한다는 것이다. 虛實이 섞여 있는 자는 扶正을 爲主로 하면서 驅邪시키는 治法을 겸하거나 혹은 驅邪를 爲主로 하면서 扶正하는 治法을 겸하였고 邪氣가 實한데 虛證을 겸한 경우는 “舍病顧虛”만 할수 없다고 하였고 몸이 虛한데 邪氣를 겸하고 있는 자는 攻清만을 爲主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診之大法 先明體質強弱 肌色蒼嫩 更詢起居致病因由 初病體質實 前法(祛邪)可遵 久病氣餒神衰 雖有腹痛後重 亦宜詳審 不可概以攻積消導施治”(《溫熱經緯》)라고 하였다.

溫補하는 것을 慎用하였는데 泄瀉는 寒病이 熱病보다 많지만 痢疾은 熱病이 寒病보다 많기 때문에 溫補를 妄用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治痢惟以疏理推蕩清火而愈者 不計其數 觀其服熱

58) 吳家清, 上揭書. p.41 - 42.

藥而死者甚多”라고 하였다. 아울러, 痢疾에는 禁食을 해서 溫熱의 邪氣가 穀食과 서로 합하여 除去되기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도 “吃不死的痢疾”이라는 잘못된 論點은 批判을 받고 있다. 그리고, “不論痢屬何邪 邪之輕重 強令納食以致劇者 近尤多也”라고 하였다.

暑夾食痢에 대해서 王氏는 攻補가 모두 마땅하지 않고 “輕清取之”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沙蔘, 黃連, 蓮子, 梔子, 黃芩, 枇杷葉, 石斛, 白扁豆, 金銀花, 橘皮, 山楂, 神麴, 滑石 등을 써서 處方을 구성하였으며 肺氣를 清肅시키고 氣機를 調暢시키는 것을 爲主로 하여 治療하면서 清熱解毒, 益胃導滯하는 藥들을 佐藥으로 使用하였다.

暑熱에 의한 痢疾에 대해서 王氏는 仲景의 厥陰熱痢를 治療하는 白頭翁湯을 取하고 그 處方에 梔子, 黃芩, 金銀花, 白芍藥, 川棟子를 加하여 清心涼肝하고 肉蓯蓉, 石斛, 白芍藥을 加하여 養陰柔肝하고 鱉甲, 牡蠣, 羚羊角, 桑葉으로 潛陽熄風하였고 橘葉, 海蜃, 鷄內金, 川棟草 등으로 行氣消滯하게 하였다. 이는 正氣가 虛하고 邪氣가 實한 證象으로 苦寒한 藥으로 祛邪시키는 것을 急先務로 하고 滋陰扶正하는 것을 佐로 하여 治療한 것이다.

身體가 虛하면서 發生한 痢疾에 대해서 王氏는 “通因通用”의 一般的인 痢疾 治療法을 써서는 안되고 證象에 依據하여 大劑로 溫補시키는 藥을 사용하면 脈候가 점차 편안해진다고 하였다. 濕熱에 의한 痢疾에는 溫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王氏는 白痢가 절대로 寒이 原因이 아니므로 脈證을 반드시 參考하여 原因을 正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白痢라도 脈이 沈滑數한 것은 暑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黃芩, 黃連, 杏仁, 厚朴, 橘紅, 神麴, 白芍藥, 川棟草, 金銀花, 海蜃, 鷄內金 등과 같이 氣分의 濕熱을 清解하는 藥을 주로 삼고 解毒導滯하는 藥을 佐로 삼아서 治療하였다.

寒濕에 의한 痢疾은 溫散法을 사용하였는데 王氏는 痢疾중에 하나를 治療하였는데 그 證象이 晝夜로 泄瀉를 백여회 정도 하고 飢渴이 없고 구역질을 하고자 하면서 腹痛이 있고 脈이 和平하였다. 그는 이를 寒濕이 안에 막혀서 氣機가 不暢하여 發生한 疾病이라고 보았는데 藥은 乾薑, 肉桂, 吳茱萸, 厚朴 등을 여러 차례 服用하니 治療되었다.<sup>59)</sup>

이상의 內容을 綜合하면 王氏가 痢疾을 治療하는 關鍵은 病邪의 寒熱 屬性和 體質의 強弱, 病位의 氣血, 標本의 緩急을 分別하여 治療해야한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急證의 診斷과 治療

急證의 證治에서도 王氏는 여전히 辨證을 基本으로 하여 立方하고 用藥하였는데 그는 “處方者貴于用藥之恰當病情 而取舍得宜也”라고 하였다.(《王氏醫案續編》) 그 에 대해서 《薈萃溫病學說的王士雄》의 內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急病의 重症에는 大劑를 投與하였다. 王氏는 “既患駭人之病 必服駭人之藥”이라고 하여 劑型과

59) 吳家清, 上揭書. p.42 - 43.

用量の 大小는 疾病의 輕重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였다. “急病重病 非大劑無以拯其危”라고 하여 急病과 重病에는 大劑를 投與할 것을 主張하였다. 許某란 사람을 治療하는데 熱이 盛하고 譫妄하면서 不安하며 神昏한 것이 마치 술에 취한 듯하였는데 12일 동안 大劑 寒涼藥을 24劑를 投與하였다. 計算을 해보면 犀角이 90餘g이었다. 羅某란 사람을 治療하였는데 그 證象은 여름에 갑자기 惡寒, 發熱을 하면서 嘔吐를 하며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사타구니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으며 赤色の 腫脹이 있었는데 處方에 金銀花 180g과 生甘草 30g, 阜角子 15g을 써서 水煎하여 술에 타서 服用하게 하니 한 劑에 病이 줄어들고 두 劑에 病이 완전히 治癒되었다.

王氏는 病勢는 急한데 身體가 虛弱한 경우에는 항상 가볍고 藥效가 빠른 藥으로 治療를 하여 邪氣는 몰아내면서 正氣는 傷하지 않는데 到達하였으며 正氣를 잘 붙들면서 邪氣를 助長하지는 않았다. 그는 藥物의 權衡에 대해서 “大人之病 亦須量其胃氣而權方劑 凡脆薄之人 意與小兒 同視可也”라고 하였다. 어떤 아이를 治療하는데 微熱이 있으며 목소리가 쉬었고 밤에 울면서 抽搐하였는데 蚱蟬 세쪽을 끓여서 마시게 하니 治療되었다. 이는 대개 清熱熄風하면서 聲音을 고르게 하고 夜啼를 그치게 하는 藥으로 少量으로도 效果를 볼 수 있는 藥이다.

寒涼한 藥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溫補法을 완전히 排除하지는 않았다. 翼某氏의 暑病을 治療하였는데 誤治한 후에 脈이 伏하여 氣運이 虛脫하였다. 급하게 六一散 30g을 취하여 紫雪丹 3g을 삼키게 하고 그 다음날에 白虎湯을 투여하니 治療되었다. 그러나, 王氏가 溫補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찍이 “溫補亦治病之一法 何可廢也”라고 하였다. 한 男子가 喉痺를 앓고 있었는데 喉科에서 목의 病은 治療하였으나 全身의 腫脹은 날로 심해졌다. 王氏는 喉科에서 寒涼한 藥으로 처음 治療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中病則止”하지를 못하여 “藥過病所”하는데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附子理中湯 數劑를 투여하니 治療되었다. (《王氏醫案釋注》)

王氏는 拘急藥을 대비해 놓고 급한 경우에 취해서 사용하였다. 주로 牛黃丸, 紫雪丹 蘇合香元, 神犀丹, 玉樞丹, 錫類散, 當歸蘆薈丸 등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였다. 顧某氏가 病이 들어 舌卷, 瘳厥, 脉虛促欲絶한 경우에 우선 紫雪丹을 服用하게 하고 다음에 犀角地黃湯을 服用하게 하니 治療되었다. 또 翁某氏가 目疾을 앓으면서 腹中에痞脹이 있어서 痛症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이며 飲食도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便秘가 심하였는데 金鈴子散 合 雪羹煎으로 當歸蘆薈丸을 吞服하게 하니 效果가 있었다.

넌리 驗方을 採集하여 重病을 治療하였다. 吳某氏가 久病으로 寢牀에 누워 있다가 毒瘡이 심하게 걸렸는데 王氏는 《子母秘錄方》에서 蟾蜍가 “治小兒毒瘡”한다는 經驗을 根據로 큰 蟾蜍를 잘 씻어서 끓여서 服用하게 하니 治療되었다. 또 張某氏가 가을철 밤중에 땅에 갑자기 쓰러져서 口噤하면서 昏迷하였는데 우선 烏梅로 이빨을 문질러서 牙關을 열게하고 젓가락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淡鹽姜湯을 부어 넣고 거위 깃털을 목에 넣어서 문지르게 하니 크게 한 숨을 쉬고서 蘇生하였다.

疑心되거나 어려운 위급한 疾病은 內治와 外治를 合用하였다. 珠某氏가 갑자기 턱에 腫脹이

생겼는데 언달아서 입술과 코에도 腫脹이 이어졌다. 그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으며 혀를 내밀 수가 없었는데 清熱解毒시키는 處方으로 投與하고 紫雪丹으로 입술 안쪽을 문지르며 錫類散을 咽喉에 붙어 넣었으며 橄欖 열매로 腫脹이 있는 部位를 문지르게하니 腫脹이 사그라들면서 病이 治療되었다.<sup>60)</sup>

이상의 內容을 考察하면 왕씨는 위급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徵적인 治療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急病의 重症에는 大劑를 投與하였다.
- ② 病勢는 急한데 身體가 虛弱한 경우에는 항상 가볍고 藥效가 빠른 藥으로 治療를 하였다.
- ③ 寒涼한 藥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溫補法을 완전히 排除하지는 않았다.
- ④ 拘急藥을 대비해 놓고 급한 경우에 취해서 사용하였다.
- ⑤ 널리 驗方을 採集하여 重病을 治療하였다.
- ⑥ 疑心되거나 어려운 위급한 疾病은 內治와 外治를 合用하였다.

#### (8) “食療”의 應用

“食療”란 평소에 常用하는 食品을 가지고 疾病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食療”를 運用하는 것은 王氏의 臨床중에 한 가지 큰 특색이 되고 있는데 《隨息居飲食譜》의 序論을 살펴보면 “嗚呼 國以民爲本而民失其教 或以亂天下 人以食爲養而飲食失宜 或以害身命 衛國 衛生 理無二致 故聖人疾與戰 竝慎而養 與教竝重也”<sup>61)</sup>라고 하여 食療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단지 飲食의 寒熱溫燥의 性만을 파악하여 疾病의 寒熱虛實의 偏僻된 點을 바로잡으면 藥으로 쓸 수 있다고 認識하였다. 《隨息居飲食譜》는 營養과 食療에 관한 專門書籍이라고 할 수 있다. 藥用 飲食物을 水飲, 穀食, 調和, 蔬食, 果食, 毛羽, 鱗介의 7門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王氏의 醫案, 醫論, 등의 轉籍 중에도 “食療”에 대한 醫案이 매우 많은데 《薈萃溫病學說的王士雄》에 정리된 內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單味로 “食療”한 경우

王氏는 飲食으로 藥을 대신하였는데 “處處皆有 人人可服 物異功優 久服無弊”라고 하였다. 만일 大量으로 배나 사탕수수 등의 果汁과 같이 甘涼한 味를 가지고 汁液이 充滿한 과일을 많이 먹으면 津液을 補할 수 있는 效果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배즙을 “甘涼潤肺”하므로 “天生甘露飲”이라고 하였으며 津液을 補하는데 使用하면 더욱 效果가 있다고 하였다. 溫散과 溫補藥을 잘못 먹어서 病이 심해진 者는 藥物 治療를 하는 것 말고도 항상 매일같이 배를 먹게 하였는데 어떤 病案의 예를 보면 배를 모두 300여근을 먹게 하니 病이 治療되었다고 하였다.

60) 吳家清, 上揭書. p.44 - 46.

61) 朱邦賢集, 隨息居飲食譜,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三聯書店, 1989. p.1.



또 甘蔗는 “甘涼 清熱 …… 充液 …… 榨漿 名天生腹脉湯”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甘味가 너무 심하고 生津시키는 힘이 남아돌고 涼性이 심하게 微弱하며 熱을 끄는 能力도 不足하므로 津液은 虛하고 熱은 심하지 않은 자가 가장 마땅하며 風溫證 중에서 津液을 구하는 좋은 藥이 된다. 예를 들면 分娩 후에 다시 發熱이 있는 사람은 胃汁이 마르는데 자주 蔗汁을 먹이니 津液이 돌아오고 혀가 潤澤해져서 治療가 되었다. 西瓜汁의 이름은 “天生白虎湯”이라고 하였으며 “甘寒 清肺胃”한다고 하였다. 霍亂, 轉筋, 目陷, 形消의 證象에 사용하였다. 또한 白虎湯을 쓸 때 補助方으로 사용하였다. 또 食品을 가지고 解毒하는데 사용하여 매우 간편한 效果를 본 경우가 있다. 綠豆는 “甘涼 煮食清膽養胃 解暑止渴 …… 生研絞汁服 解一切草木金石諸藥 牛馬肉毒 或急火煎清湯 冷飲亦可”라고 하였다. 그리고, 烏頭毒을 푸는 효과도 좋다. 一般的으로 綠豆 二升을 센 불에 끓이고 식힌 후에 마시게 하면 종종 病이 없어지고 確然한 效果를 보게 된다. 그러나, “以食代藥”하는데는 반드시 性味를 자세히 分別하여 病情에 잘 맞아 떨어지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豬爲水畜 其肉最腴 大補腎陰而生津液 用治腎水枯涸之消渴 陰虛陽越之喘嗽 并著奇效 仲景治少陰咽病用豬膚 亦取其補陰虛又戢浮陽也”라고 하였다. 여기에 根據해서 그는 신선한 돼지고기를 씻어서 큰 덩어리로 썰어서 센 불에 煎湯을 하고 위에 뜨는 기름을 걷어내고 마시게 하여 젊은 婦人이 胎가 難하여 내려오지 못하는데 마시게 하여 쉽게 出產하게끔 하였다.<sup>62)</sup>

## 2) 飲食을 선택하여 處方을 구성하였다.

王氏는 항상 두 종류 이상의 飲食物을 가지고 處方을 만들어 臨床에 應用하였다. 예를 들면 橄欖과 生蘿蔔으로 “靑龍白虎湯”이란 處方을 만들어 膏粱魚面の 毒을 풀게 하였고 또 咽喉의 證象을 治療하였다. 이는 지금도 咽喉가 靑爛되어 따끔거리는 證象들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豬肚一具 治淨以蓮子去心入肚內 水煎糜爛 收乾搗爲丸服 名玉芝丸”이라고 하였는데 胃氣가 薄弱한 사람에게 먹이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지고 健壯하게 한다고 하였다.<sup>63)</sup>

## 3) 藥과 飲食을 섞어서 治療하였다.

王氏는 항상 藥과 飲食의 性味の 特徵을 根據로 서로 配合하고 運用하였다. 예를 들면 朱氏의 婦人이 초저녁에는 惡寒을 하고 밤중에는 發熱을 하며 盜汗, 咽乾, 咳嗽, 脇痛, 月經량 減少 등의 證象이 있고 肌肉이 마르고 매우 疲勞하며 左手의 脈이 弦하면서 數하였으며 右手의 脈이 澁하면서 弱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鬱滯된 것이 많은데 생각을 많이 하여 이른바 病이 心脾에서 발한 것이다. 평소에 藥을 싫어하였는데 어떻게 억지로 다시 藥을 주어서 그 胃腸을 해치게 할 수 있겠는가? 甘草, 小麥, 紅棗, 藕의 네 가지 藥의 飲食으로 粥을 쑤어서 자주 마시게 하니 治療되었다. 또 陳某氏가 기침, 吐痰을 하다가 계속하여 深紅色에 紫色을 띠는 피를

62) 吳家清, 上揭書, pp.46 - 47.

63) 吳家清, 上揭書, p.47.

吐하였는데 여러 藥이 모두 效果가 없었다. 王士雄이 淸肺養陰시키는 治療를 하는 것 말고도 松石猪肚丸을 삼키게 하여 治療하였다.<sup>64)</sup>

#### 4) 飲食物을 끓인 물로 藥을 煎湯하였다.

王氏는 비교적 많은 飲食物을 먼저 끓인 후에 그 물에 藥을 달이기를 좋아하였다. 혹은 食湯을 가지고 丸藥을 삼키게 하였다. 淸熱, 鑷痰, 理氣, 通絡, 舒鬱에 따라 다른 食湯을 使用하였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治療되지 않는 疥瘡에 雪羹湯에 當歸龍薈丸을 送服하게 하였고 腕痛에는 海蛇와 葶薺를 각 120g을 煎湯한 후에 다시 高麗蔘, 黃連, 川棟草, 玄胡索, 梔子, 枳實, 竹茹 등의 藥을 끓인 물에 當歸龍薈丸을 送服하게 하니 편안해졌다. 오줌을 눈 후에 피가 보이는 경우에는 藕湯에 淸熱涼血하는 藥을 煎湯하여 治療하였다. 嘔瀉, 身熱, 腹痛, 精神昏迷에는 冬瓜湯에 黃芩, 黃連, 滑石, 石斛, 竹茹, 黃柏, 金銀花, 竹葉, 橘皮, 枇杷葉 끓여서 사용하여 熱이 물러나고 精神이 맑아지는 效果를 가져오게 하였다.<sup>65)</sup>

以上の 內容을 綜合하면 “食療”의 經驗은 神奇한 것 같지만 理致는 매우 타당하며 藥은 病에 따라서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飲食의 平淡한 性味로도 사용하면 매우 妥當한 結果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이한 效果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醫論 중에 나타나는 王士雄의 臨床醫學

### (1) 六氣의 辨別

王氏는 《六氣辨》에서 六氣에 대한 자신의 見解를 披瀝하고 있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王氏는 風, 暑, 火의 三氣가 陽에 속하고 寒, 燥, 濕의 三氣는 陰에 속한다고 보았는데 “所謂 六氣 風寒暑濕燥火也 分其陰陽 則素問云 寒暑六氣 暑統風火 陽也 寒統燥濕 陰也”<sup>66)</sup>라고 하였다.

또한 暑氣에 대한 分別이 매우 자세한데 暑邪는 陽에 속하고 濕邪를 겸하기 쉽다고 보면서 暑邪는 陰邪에 속한다는 見解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至暑乃天之熱氣 流金爍石 純陽無陰 或云陽邪爲熱 陰邪爲暑者 甚屬不經 經云 熱氣大來 火之勝也 陽之動 始于溫 盛于暑 盖在天爲熱 在地爲火 其性爲暑 是暑卽熱也 并非二氣”<sup>67)</sup>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暑邪는 반드시 濕邪를 겸한다는 見解에 대해서도 辯論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다.

64) 吳家清, 上揭書, p.47.

65) 吳家清, 上揭書, pp.47 - 48.

66) 王士雄, 《溫熱經緯》, 上揭書. p.81.

67) 王士雄, 《溫熱經緯》, 上揭書. p.81.

그에 대해서는 “或云 暑必兼濕者 亦誤也 暑與濕原是二氣 雖易兼感 實非暑中必定有濕也 譬如暑與風 亦多兼感 豈可謂暑中必有風耶 若謂熱與濕合始名爲暑 然則寒與風合又將何稱”<sup>68)</sup>이라고 하고 있다.

暑邪를 陰暑와 陽暑로 나누어 說明하는 見解에 대해서도 批判하고 있다. “更有妄立陰暑陽暑之名者 亦屬可笑 如果暑必兼濕 則不可冠以陽字 若知暑爲熱氣 則不可冠以陰字 其實彼所謂陰者 卽夏月之傷于寒濕者耳 設云暑有陰陽 則寒亦有陰陽矣 不知寒者 水之氣也 熱者 火之氣也 水火定位 寒熱有一定之陰陽 寒邪傳變 雖能化熱 而感于人也 從無陽寒之說 人身雖有陰火 而六氣中不聞有寒火之名”<sup>69)</sup>이라고 하고 있다.

暑邪와 寒邪는 다른 邪氣와는 달리 陰陽이 섞이기 어려운 性質을 가지며 確연하게 서로 다른 면모를 보인다고 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暑字從日 日爲天上之火 寒字從冫 冫爲地下之水 暑邪易入心經 寒邪先犯膀胱 霄壤不同 各種其類 故寒暑二氣 不比風寒濕 有可陰可陽之不同也”<sup>70)</sup>라고 하고 있다.

끝으로 六氣의 邪氣를 잘 分別하여 治療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況夏秋酷熱 始名爲暑 冬春之熱 僅名爲溫 而風寒燥濕 皆能化火 今日六氣之邪 有陰陽之不同 又隨人身之陰陽變化 毋乃太無分別乎”<sup>71)</sup>(《溫熱經緯》)라고 하고 있다.

本篇을 考察하면 비록 이름은 《六氣辨》이라고 하였지만 六氣에 대해서는 簡略하게 陰陽만을 구분하는 정도에서 說明이 그치고 있으며 전체 內容의 대부분이 暑熱邪에 대한 說明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中國측 資料를 보면 本篇이 “風寒暑濕燥火의 各자의 性質을 分明하게 分別하였으며 병이 되는 特徵, 相互關係에 대해서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sup>72)</sup>고 하였는데 이는 지나친 解釋으로 판단된다. 즉 本篇은 暑熱邪에 대해서는 비교적 詳細한 論述을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邪氣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은 說明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溫病學說을 定立한 그의 學術淵源과 밀접한 聯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思料되고 本篇을 쓴 목적이 溫病을 治療하는데 暑熱邪에 대한 確實한 理解를 돕기 위해 나머지 邪氣들과 聯關하여 說明하고자 한 것이라는 結論을 導出할 수 있다.

이상의 《六氣辨》은 後世에는 代表的인 王氏의 醫學思想의 하나로 보고 많은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中醫各家學說》에서는 그가 暑病에 대해서 歷代의 다른 醫家들과는 달리 매우 精確하고 分명한 分類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王氏는 六氣의 屬性中에서 暑氣의 屬性 및 그와 濕과 火와의 關係에 대해서 매우 精確한 分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暑邪에 대해서 歷代 醫家들은 模糊한 認識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長元素는 “動而得之爲中熱 靜而得之爲中暑 中暑者陰症 中熱者陽症”이라고 하였

68) 王士雄, 《溫熱經緯》, 上揭書. p.81.

69) 王士雄, 《溫熱經緯》, 上揭書. p.81.

70) 王士雄, 《溫熱經緯》, 上揭書. pp.81 - 82.

71) 王士雄, 《溫熱經緯》, 上揭書. p.82.

72) 吳家清, 薈萃溫病學說的王士雄, 中國歷代名醫學術經驗薈萃叢書. p.60.

고 李杲는 그 內容을 說明하기를 “或避暑熱 納涼于深堂大厦者 名曰中暑 …… 若行人或農夫于日中勞役得之者 名曰中熱”이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暑病에 陰陽의 區分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陰暑者 因暑而受寒者也 …… 陽暑者 乃因暑而受熱者也”라고 하였다. 喻昌은 “熱蒸其濕是爲暑 無濕則但爲乾熱而已”라고 하였다. 章楠은 “火濕合而成暑氣”라고 하였다. 葉天士와 吳鞠通과 같은 溫病의 大家들도 “暑必兼濕”의 觀點을 堅持하고 있다. 여기에서 王士雄의 觀點은 分明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暑病을 臨床的으로 辨證하고 施治하는데 중요한 意義를 가지고 있고 어떤 側面에서는 王氏가 溫熱病의 研究에 있어서 매우 높은 境地에까지 올라 있다는 것을 反影하고 있는 것이다.<sup>73)</sup>

## (2) 霍亂의 寒證과 熱證에 대한 論述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王士雄은 霍亂의 辨證治療에 매우 능했는데 《重訂隨息居霍亂論》 중에는 《霍亂熱症》과 《霍亂寒證》에 대한 醫論이 있으며 이 또한 代表的인 그의 學術著述로 評價 받고 있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霍亂熱證

熱證霍亂의 原因과 病機 基本的인 治法인 通因塞用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運氣學的으로 熱症霍亂이 자주 오는 時期가 春分이후에서 秋分이전까지의 時期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春分以後 秋分以前 少陽相火 少陰君火 太陰濕土 三氣合行其政 故天之熱氣下 地之濕氣上 人在氣交之中 受其蒸淫之氣 由口鼻入而擾其中 遂至升降失司 清濁不分 所瀉者皆五臟之津液 急宜止之 然止非通因塞用之謂也”<sup>74)</sup>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熱證 霍亂을 각각의 原因과 證候에 따라서 分類하고 治法을 提示하고 있는데 그 內容을 定理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73) 裘沛然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77-478.

74) 曹秉文, 上揭書. p.651.

原因	證候 및 機轉	治療
濕甚		胃苓湯分離陰陽
熱甚		桂苓甘露飲清其暑火
但吸暑邪	若火盛之體 內本無濕	白虎湯之類宜之
陰虛者火旺	雖病發之時 適犯生冷	橘朴等只宜暫用
陽虛者濕勝	雖寒潤之品 非其所宜	如胃苓湯已爲合法
傷暑霍亂	身熱, 煩渴, 氣粗, 喘悶, 厥逆, 煩躁	慎勿認爲陰證
熱極似陰	手足厥冷 少氣 脣面爪甲皆青 腹痛 自汗 六脈皆伏而察其吐出酸穢 瀉下臭惡 小便黃赤熱短或吐下皆系清水 而瀉出如火 小便點滴或全無者皆是熱伏厥陰也	地漿煎, 竹葉石膏湯
熱伏于內	吐瀉後 身冷如冰 脉沈欲絕 湯藥不下 或發噎 駕輕湯之類投之脉漸出 投藥稍溫 愈服愈吐 驗其口渴 以涼水與之 即止者生	

資料 : 曹秉文, 上揭書. p.652.

熱證 霍亂을 治療하는데 標本을 잘 區別해서 治療해야 하지만 본래 가지고 있던 體質이 虛寒하다고 하여 현재의 熱邪를 잇는 것에 대해서 警戒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특히 熱霍亂에 있어서는 病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特徵의인 證象 몇 가지만으로 溫熱한 藥을 쓰게 되면 그 被害가 아주 심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若因其素稟之虧 而忘其現病之暑 進以丁附 姜 桂之劑 眞殺人不可轉矣”<sup>75)</sup>라고 하고 있고, “但察其小便必黃赤 舌苔必粘膩 或白厚 宜燃照湯 澄冷服一劑 則現熱象 彼時若投姜 附藥 轉見渾身青紫而死矣”<sup>76)</sup>라고도 하고 있다.

이상의 內容을 볼 때 비록 대부분의 證象이 虛寒證과 類似하더라도 熱證霍亂은 吐出物이 酸臭가 나면서 穢濁하고 泄瀉한 것이 惡臭가 심하고 小便이 黃赤하면서 熱短한 것을 特徵의인 證象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治療는 止瀉法으로 津液을 救하고 清暑利濕시켜서 穢濁한 邪氣를 除去하는데 主眼點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霍亂寒證

《重訂隨息居霍亂論》의 《霍亂寒症》에서는 寒證霍亂의 原因과 時期, 機轉에 대해서 大略的인 說明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歲土不及 則脾胃素虛之人 因天運而更見其虛 中陽既虛 寒濕自盛 以致朝食暮瀉而爲殮泄 甚加嘔吐而爲霍亂”<sup>77)</sup>이라고 하고 있다.

寒證霍亂의 特徵의인 證象은 “必是清穀而非臭穢 吐者亦必澄徹而非酸濁 小便之利 口之不渴 又從而可必矣”<sup>78)</sup>라고 提示하고 있으며 寒霍亂에 잘 걸리는 사람은 “多見于安逸之人 以其深居

75) 曹秉文, 上揭書. p.651.

76) 曹秉文, 上揭書. p.651.

77) 曹秉文, 上揭書. p.655.

78) 曹秉文, 上揭書. p.655.

靜處 陽氣不伸 坐臥風驚 起居任意 冰瓜果 恣食爲常”<sup>79)</sup>한 體質과 習慣을 가지고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寒證霍亂의 治療에 대해서 病이 가벼우면 藿香正氣散이나 平胃散 加 木香 藿香 生薑 半夏와 같은 藥을 쓰고 濕이 盛하여 四肢가 무겁고 骨節이 煩痛하는 者는 胃苓湯 加 木香 藿香 大腹皮와 같은 藥을 쓰고 七情이 鬱結되고 寒食이 停滯된 者는 厚朴湯, 治中湯을 쓰고 頭痛, 惡寒, 無汗한 者는 香薷飲으로 우선 그 表證을 解散시킨 후에 大順散으로 그 안을 調理한다. 만일 脈이 弱하여 陽虛하며 腹痛이 있으면서 따뜻한 손으로 누르는 것을 좋아하며 泄瀉를 하는데 냄새가 잘 나지 않는 경우는 來復丹을 쓰고 만약 吐瀉를 그치지 않고 元氣가 耗散되며 물이나 쌀알이 넘어가지도 못하고 口渴하면서 찬 물을 마시기를 좋아하는데 많이 마시지는 않고 혹은 惡寒, 戰慄, 手足厥冷, 煩熱 등이 있는데 泄瀉에 냄새가 나지를 않는 경우는 內部가 虛하여 陰盛格陽한 證候로 理中湯을 쓰고 심하면 四逆湯 加 食鹽少許를 가지고 治療한다. 다시 暴瀉가 마치 물과 같고 冷汗, 四肢逆冷, 脈弱, 不能言한 경우는 急하게 漿水散으로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寒證霍亂도 熱霍亂처럼 寒熱을 착각하여 治療하면 亡陽이 되어 그 副作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는데 “然此輩實由避暑而反爲寒傷致病 若拘泥時令 誤投清暑之劑而更助其陰 則頃刻亡陽莫挽矣”<sup>80)</sup>라고 하였다.

이상의 內容을 볼 때 王氏는 자기의 臨床經驗과 氣候, 體質 등의 因素를 가지고 霍亂寒證의 病因과 病理, 辨證要點, 治療原則, 辨證論治를 說明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平素에 脾胃가 약한 사람이 霍亂寒證에 걸리기 쉽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것이 반드시 맑고 淸冷하며 泄瀉한 것이 完穀이 不化하는 것을 特徵의인 證象으로 보고 있다. 治療原則은 健脾化濕, 理氣和中시키는 것을 要點으로 보고 있다.

그의 霍亂病에 대한 研究에 대해서 現代 中國에서는 매우 높은 評價를 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中醫各家學說》에서는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이상에서 敘述한 內容을 보면 王士雄은 霍亂의 論述에 있어서도 또한 매우 높은 境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그는 前人들이 가지고 있었던 “有寒無熱”의 觀點을 打破하면서 霍亂에 寒熱의 두 종류가 있다고 強調하고 있다. 《傷寒論》에서 四逆湯과 理中丸, 五苓散과 같은 藥으로 霍亂을 治療한 후에 《巢氏病原》, 《三因方》 등에서 모두 “霍亂無不本之風冷”이라고 하였고 薛立齋, 張介賓 등은 오로지 寒邪만을 주로 論하는데 이르렀으며 後인들이 모두 熱藥으로 霍亂을 治療하게 하여 治療에 汚點을 남기게 되는 結果를 낳았다. 따라서, 王氏가 寒熱을 나누어 治療할 것을 主張하는 점은 眞實로 偏僻된 것을 補充하고 弊端을 없애는 論述이며 後人에게 많은 貢獻을 하는 論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王士雄은 霍亂의 病因에 대한 認識에 있어서도 또한 새로운 意味를 갖추고 있었는데 百餘年前에 능히 霍亂에

79) 曹秉文, 上揭書. p.655.

80) 曹秉文, 上揭書. p.655.

疫病으로 인하여 發病한 것도 있다는 認識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流行하게 되는 原因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豫防法과 治療法도 파악하고 있었다. 세번째로는 治療의 方面에서 王氏는 前人の 經驗을 吸收하여 發展시키고 있었는데 燃照湯, 連朴飲, 蠶矢湯, 黃芩定亂湯, 駕輕湯 등의 處方을 創製하여 霍亂의 治療에 있어서 一定한 貢獻을 하고 있다.<sup>81)</sup>

### 3. 代表的인 醫案을 통해 알 수 있는 王士雄의 臨床醫學

王氏는 醫案이 매우 많은데 《王氏醫案》의 初編 第2卷과 《王氏醫案》續編 8卷, 《王氏醫案》3編 3卷 말고도 《歸硯錄》 중에 第4卷이 醫案이고 《重訂隨息居霍亂論》에는 여기저기에 醫案이 보인다. 그의 醫案은 論理가 뛰어나고 辨證이 정확하며 處方이 딱 들어 맞는다. 그는 病을 治療할 때에 辨證을 하는데 그 根本을 探究할 것을 重要時하였는데 一貫되게 “源澄而流自潔 議病然後議藥”이라는 辨證論治의 宗旨를 세웠다.

그의 醫案에 대한 諸家の 評價를 보면 楊俊杰은 《王氏醫案》序에서 말하기를 “每臨一證 息心靜氣 曲證旁參 務有以究乎病情之眞而後已 宜乎出奇制勝 變化無方 著之醫案 卓卓可傳如是也”<sup>82)</sup>라고 하였고 周鏌은 “見聞有限 遺美極多 世之君子 必有如庄斂之 華岫云其人者 更爲之遠搜博采 以廣其傳”<sup>83)</sup>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그가 醫學書籍과 經書를 늘 가까이 두고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辨證, 診斷, 治療에 古書를 根據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楊氏는 “王氏醫案 議論精透 前無古人”라고 하여 그의 醫案이 매우 論理的이란 것을 알려 준다.

그의 醫案 중에 代表的인 몇가지를 考察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伏暑의 原因이 肺에 있는 境遇의 醫案

“范蔚然이 八月에 열흘 정도를 外感을 앓았는데 모든 醫師들이 束手無策이었다. 王氏는 그의 證象이 氣促, 音微, 팔꼭질, 自汗, 물을 마시면 곧장 吐하여 남은 것이 없는 것을 보고 ‘伏暑가 肺에 있는데 溫散을 잘 못시켜서 심해진 것이다. 대개 肺氣가 病을 받으면 治節의 作用이 잘 行하지 못하며 一身의 氣가 모두 그 順降하는 기를 잃는다. 水精이 四肢에 펼쳐지는 것은 清肅의 權利에 의하여 主管되는 것인데 氣가 이미 逆上하게 되면 물 또한 汩濫하여 위로 넘치게 될 따름이다. 그 肺를 맑게 하면 여러 疾病들이 스스로 편안해지게 된다. 전에 服用하였던 處方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柴胡, 葛根, 羌活, 防風으로 升提시키는 處方을 사용하였는데 火가 風의 威嚴을 빌어서 吐逆이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 胃中에 寒氣가 있는 것 이라고 오해를 하여 桂枝, 乾薑으로 溫燥시키는 治法을 썼다. 이는 불위에 기름을 붓는 것 같

81) 裘沛然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79.

82) 劉更生主編, 王氏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29.

83) 劉更生主編, 上揭書. p.330.

은 方法으로 肺津이 끊어지려고 하여 자연히 氣促, 音微의 證象이 發生하게 되었다. 이 때에는 虛陽이 장차 脫하려는 證象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여 다시 人蔘, 當歸, 蛤蚧, 柿蒂, 丁香으로 補하며 納氣시키려고 하였다. 補하면 할수록 逆氣가 더욱 심해지며 邪氣는 더욱 나오지를 않는 것이다.’하고서 前藥들을 모두 버리게 하고 瀉白散合清燥救肺湯을 쓰니 여러 차례 服用한 후에 便安해졌다.”<sup>84)</sup>

上記의 醫案은 伏暑가 肺에 있는데 溫補藥을 잘못 投與하고 다시 溫燥藥을 잘못 投與하여 여러 醫師들이 속수무책인 患者를 王氏가 辨證을 통하여 瀉白散合清燥救肺湯을 가지고 逆氣를 救하고 治療하였다는 內容이다. 이는 그의 溫病治療의 境地가 뛰어난 것과 證象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라고 사료된다.

## (2) 溫病이 곧장 營血에 侵犯한 경우의 醫案

“翁嘉順이 溫病에 傳染되었는데 처음에는 發熱이 있으면서 혀가 赤色이면서 渴症이 있고 脈이 數하면서 澁하였다. 王氏는 ‘豫候가 좋지 않다. 대개 陰虛한 體質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심이나 애통한 일을 당하여 五志가 안에서 일어나는 時期에 溫邪가 밖으로부터 逼迫을 하여 熱邪가 衛分과 氣分을 거치지 않고 곧장 榮分에 侵犯한 것이다.’하고 급히 清營하는 藥을 투여하고 계속하여 涼血하는 藥을 투여하였다. 病이 조금도 減少되지 않고 證象이 더욱 惡化되지만 하였다. 治療는 비록 타당한 方法을 선택하였지만 病勢가 더욱 심해지려는 때를 만난 것이다. 病이 날로 심해져서 昏瞶, 耳聾, 自利紅水, 目赤, 妄言하는 證象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王氏는 오직 晉三犀角地黃湯에 金銀花, 石膏, 知母, 石斛, 梔子, 貝母, 天花粉, 蘭草, 石菖蒲, 竹瀝, 竹茹, 海蛇 등의 藥을 加味하여 10여제 정도를 먹이니 舌上에 갑자기 穢濁한 垢苔가 끼고 口唇이 심해서 쳐다 볼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손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고 頭面에 自汗이 흘렀다. 王氏가 ‘살아나고자 하는 徵兆이다. 陰虛하여 熱邪가 깊숙히 들어갔는데 내가 한번은 清營涼血하는 治法을 사용하여 十餘日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營陰이 움직였지만 邪氣를 推動시켜 내보내지는 못하였다. 지금 이런 舌苔가 보이는 것은 오직 本源이 평소와 약하여 邪氣와 싸워서 邪氣를 쫓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肢冷, 頭汗出하는 證象이 나타나지만 이는 陽虛欲脫하려는 證象이 아니다.’하고서 다시 甘寒한 藥을 자주 마시게 하여 三日이 지났는데 口도 그치고 열도 물러나며 舌苔도 없어지고 四肢도 따뜻해졌다. 이 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犀角을 三兩 정도를 먹게 하였고 病이 나은 후에는 滋腎시키는 藥으로 調理하게 하였다.”<sup>85)</sup>

上記의 醫案은 溫病의 邪氣가 곧장 榮分에 侵犯한 患者에게 犀角地黃湯으로 清營散血시키고 白虎湯製劑를 加하여 氣分의 積熱을 清解시키고 다시 豁痰開竅하며 芳香解毒시키는 藥品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0여제 정도를 사용하니 비로소 濁한 舌苔가 밖으로 드러나고

84) 吳家清, 上揭書. pp.63 - 64. 의 內容을 再引用함.

85) 吳家清, 上揭書. pp.64 - 65. 의 內容을 再引用함.



口臭가 심했는데 이는 病邪가 처음으로 氣分을 통하여 透發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元氣가 평소에 弱하고 氣陰이 모두 傷하여 邪氣와 싸워서 解散시키지를 못하였는데 오직 甘寒한 藥을 자주 服用하게 하여 益胃시켜서 治療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王氏가 溫病의 傳變을 衛分, 氣分, 榮分, 血分으로 나누어 단계를 구분하였고 각각의 證象에 따라 확실한 辨證을 시행하였으며 그에 맞는 적절한 治療法도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陰虛한 경우에 溫病에 걸린 患者의 病案

“姚某氏가 病이 든지 三日이 지나기도 전에 癰疹이 심하게 크게 나타나고 溫邪를 吸收하여 脇痛이 있으면서 筋肉이 抽搦하고 氣逆, 痰多, 壯熱, 神昏, 莖縮, 自汗한 證象이 나타났다. 王氏는 脈이 扞數하고 舌絳無津한 것을 보고 陰虛, 陽越, 熱熾, 液涸한 위험한 證候라고 보았다. 하물며 처음부터 病이 마구 퍼지는 것을 보고 그 元氣가 堅固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犀角, 羚羊角, 元蔘, 知母를 가지고 壯水熄風하게 하였고 肉蓯蓉, 棟實, 鼠矢, 石英으로 潛陽鎮逆하게 하였고 沙蔘, 麥門冬, 石斛, 玉竹으로 益氣充津하게 하였고 天花粉, 梔子, 金銀花, 絲瓜絡 등으로 鑷痰清熱하게 하였더니 한 劑에 病이 좋아지고 四劑에 治療가 되었다. 계속하여 養陰시키는 方法을 사용하여 調理하게 하였다.”<sup>86)</sup>

上記의 醫案에 대해서는 石念祖가 그의 註釋에서 “陰虛陽越熱熾液枯 本病也 氣逆痰多 標病也 本急則本反爲標 故方中治本之藥多于治標 且陰虛之痰 補之則氣行痰降”(《王氏醫案釋注》)하다고 하였다. 本例는 이미 陰虛陽越하면서 熱熾液涸한 險證으로 溫病이 걸린 사람은 精血이 傷하여 陰氣가 溫邪를 이기지를 못하여 죽게 된다고 보는 見解와 一致하는 證象이다. 王氏는 이처럼 本虛標實한 患者에게 病勢에 따라 治法을 정하는 方法으로 治療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는 病의 상태에 따라 標本緩急을 잘 선택하여 가장 적절한 治療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春溫에 下法을 쓴 病案

“王黻石의 동생이 春溫證을 앓았는데 처음에는 譫語, 發狂의 證象이 있었다. 계속해서 淸解시키는 大劑를 사용하였는데 결국에는 昏沈, 不語, 肢冷如冰, 目閉不開, 遺尿不飲의 證象이 있었는데 醫師들이 모두 속수무책이었다. 王氏는 그 脈이 弦大하면서 緩滑하고 黃膩한 舌苔가 가득 퍼져있으며 穢氣가 곧장 噴出하는 것을 보고는 承氣湯 加 金銀花, 石斛, 黃芩, 竹茹, 玄蔘을 投與하였더니 黑屎를 매우 많이 보고서는 精神이 약간 맑아지고 약간 湯飲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날에 芒硝와 大黃을 去하고 海蛇, 蘆蘆, 黃連, 石膏를 加하여 두 劑를 먹이니 戰慄하면서 四肢가 편안해지고 舌苔가 없어져서 죽을 먹을수 있었다.”<sup>87)</sup>

86) 吳家清, 上揭書. pp.65 - 66. 의 內容을 再引用함.

87) 吳家清, 上揭書. p.68. 의 內容을 再引用함.

上記의 醫案을 考察하면 春溫의 熱結에 의한 陽明腑實證에 王氏는 급하게 下法을 사용하여 陰津을 구하는 治法을 사용하였다. 穢氣가 사람에게서 나오는가의 與否는 實熱이 內聚한 것에 대한 眞假를 가리는 중요한 端緒이다. 이 醫案을 통하여 王氏가 溫病 急證에 대해서 適切하게 治療法을 선택하였다는 것과 實熱證의 眞假를 가리는 확실한 診斷根據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時疫霍亂에 관한 醫案

“丁酉年の 八九月 사이에 杭州에 霍亂轉筋의 證象이 盛行하였다. 沈氏 婦人이 밤에 이 疾患을 심하게 앓으면서 계속하여 痞癰, 厥逆하는 證象이 있었다. 깨어날 때 즈음에 王氏가 그 脈을 診察해보니 弦細而澁하였고 兩尺脈은 마치 없는 것 같았다. 口渴이 심하였고 약간이라도 마시면 吐하는 것이 그치지지를 앓았다. 종아리는 堅硬한 것이 마치 돌과 같았고 움직일 때마다 痛症이 있어서 마치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이는 暑濕이 內伏하여 氣機를 阻塞하고 宣降의 機能을 잃게 하여 氣運이 어지러워져서 上逆한 것이다. 《金匱要略》의 鷄矢白散의 예를 기억하고 蠶矢湯 一方을 處方하였다. 陰陽水로 달이게 하여 시원해지는 것을 기다려 서서히 服用하게 하였다. 이 藥이 입에 들어가니 吐하지지를 앓았다. 外用으로는 燒酒로 사람을 시켜서 그 堅硬한 곳을 摩擦하게 하였다. 摩擦하기를 한시간 정도하니 鬱熱이 흩어져서 筋結이 처음으로 軟해졌다. 다시 소금물에 담그게하니 드디어는 쥐가 나지를 앓았으며 吐瀉가 점차 그쳤다. 저녁 때쯤에 다시 앞의 약 半劑를 投與하니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날에 단지 매우 피곤하다는 것만을 느꼈을 뿐이다. 致和湯을 여러차례 服用하게 하니 완전히 治癒되었다. 뒤에 이와 類似하게 治療한 사람이 많았는데 오직 附子를 誤服한 사람은 治療가 어려웠다.”<sup>88)</sup>

上記의 醫案을 考察해 보면 이는 “時疫霍亂”의 熱證이다. 病因은 外感 暑濕 疫癘의 邪氣가 안으로 潛伏하여 火로 化하고 氣機를 阻滯한 所致이며 宣降이 法度를 잃고 清濁이 뒤섞여서 腸胃가 어지럽혀져서 생긴 것이다. 王氏는 《金匱要略》의 鷄矢白散의 治法에 依支하여 스스로 蠶矢湯을 만들었다. 蠶矢를 가지고 濁氣를 끌어서 下行하게 하고 豆卷으로 清陽을 宣升시키고 木瓜로 濕濁을 通絡시키고 薏苡仁, 通草로 通陽化濕시키며 舒筋活絡시켜서 厥證을 治療하게 하였다. 黃芩, 黃連, 梔子로 三焦의 鬱熱을 清解하였고 半夏, 吳茱萸로 嘔吐와 泄瀉를 그치게 하였다. 陰陽水는 陰陽寒熱의 사이를 交通하여 그 升清하고 降濁하는 뜻을 돕는다. 服藥을 하는 과정에서 惡候는 점차 좋아졌는데 다만 陰津만이 크게 虧損되었다. 致和湯으로 益氣하고 滋陰하게 하니 완전히 治癒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그는 古典에 나오는 治驗例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면서 자신이 당시의 狀況에 맞게 자유자재로 應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8) 吳家清, 上揭書. pp.70 - 71. 의 內容을 再引用함.

### Ⅲ. 結論

王氏의 臨床醫學을 考察해 본 結果 그의 臨床醫學은 溫病에 대한 診斷治療, 痰證의 診斷과 治療, 霍亂의 診斷과 治療, 血症의 診斷과 治療, 中風의 診斷과 治療, 痢疾의 診斷과 治療, 急證의 診斷과 治療, 食療의 應用 등 다양한 분야에 長點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溫病에 대한 診斷治療에 있어서는王氏의 《溫熱經緯》는 溫熱學說을 總結하고 發展시켰으며 各家의 長點들을 綜合하고 자신의 意見을 적절히 參考한 書籍이란 것을 알 수 있었고, 伏氣 溫病과 新感溫病의 鑑別診斷에 능하였으며 葉天士 이후로 新感溫病에만 치중하여 伏氣 溫病을 소홀히하는 風潮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提示하고 있으며, 順逆傳에 대해서 깊은 論술을 하고 있고, 溫熱病을 治療하는데는 淸熱甘潤之劑를 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痰證의 診斷과 治療에 있어서王氏는 痰의 病因을 火가 그 代表的인 것이라고 보았고 그것이 疾病으로 化하는 과정에서 痰, 火, 氣의 세가지 因子가 서로 결합하여 복잡한 病症들을 나타낸다고 본 것을 알 수 있고, 痰病의 가장 큰 原因이 溫病, 五藏의 實火 및 虛火, 濕熱, 風熱, 陰虛熱, 陽明熱 등 各種 雜病의 熱邪라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霍亂의 診斷과 治療에 있어서 그는 霍亂을 熱霍亂과 寒霍亂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으며 藥物도 매우 獨특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血症의 診斷과 治療에 대해서 實證의 경우는 胃中積熱, 肝火上亢, 肝鬱凝瘀, 瘀久化熱의 機轉을 거쳐서 傷絡吐血하게 된다고 하였고, 熱邪가 肺에 맺히면 肺絡을 傷하게 하여 咳血하게 한다고 하였다. 虛證의 경우는 腎水虧損, 虛火上炎에 의하여 肺를 傷하게 되어 咳血, 鼻衄 등의 證象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中風의 診斷과 治療에 대해서王氏는 風과 火, 痰이 서로 密接하게 聯關이 있다고 認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治療에 있어서는 化痰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데 化痰시키는 治法을 基礎로 삼고 泄火, 熄風, 通腑, 淸熱하는 治法을 輔助로 사용하여 治療하였다. 즉 治風하려면 滌痰을 시켜야 하고 痰이 없어지면 風이 스스로 없어진다고 본 것으로 이는 매우 타당한 觀點이다.

痢疾의 診斷과 治療를 綜合하면王氏가 痢疾을 治療하는 關鍵은 病邪의 寒熱 屬性과 體質의 強弱, 病位의 氣血, 標本의 緩急을 分別하여 治療해야한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急證의 診斷과 治療를 考察하면王氏는 危急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徵적인 治療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急病의 重症에는 大劑를 投與하였고, 病勢는 急한데 身體가 虛弱한 경우에는 항상 가볍고 藥效가 빠른 藥으로 治療를 하였으며, 寒涼한 藥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溫補法을 완전히 排除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拘急藥을 대비해 놓고 급한 경우에 취해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널리 驗方을 採集하여 重病을 治療하였다. 疑心되거나 어려운 위급한 疾病은 內治와 外治를 合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食療의 應用에 있어서는 “食療”의 經驗은 神奇한 것 같지만 理致는 매우 타당하며 藥은 病

에 따라서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飲食의 平淡한 性味로도 사용하면 매우 妥當한 結果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이한 效果도 볼 수 있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王士雄의 臨床醫學이 現在에 미친 貢獻은 그의 臨床的인 技術의 탁월함도 있겠지만 그의 臨床經驗을 지금도 調查하고 應用할 수 있도록 客觀的인 言語로 잘 정리하여 後世에 전한 것이 더욱더 훌륭한 그의 業績이라고 思料되며 이를 本考의 結論으로 삼는다.

## 參 考 文 獻

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2. 裘沛然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3. 王士雄, 溫熱經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4. 裘沛然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5. 楊醫並主編, 中國醫學史, 河北省,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6. 俞慎初, 中國醫學簡史, 福建省,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3.
7. 陳大舜主編, 《中醫各家學說》, 湖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5.
8. 吳家清編著, 蒼萃溫病學說的王士雄, 中國歷代名醫學術經驗蒼萃叢書, 1985.
9. 達美君校註, 王孟英醫案, 明清中醫臨證小叢書, 1994..
10. 曹炳章原輯, 隨息居霍亂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1. 徐榮慶主編, 清代名醫醫術蒼萃,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7.
12. 朱邦賢集, 隨息居飲食譜,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三聯書店, 1989.
13. 劉更生主編, 王氏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7.